

# 『東國十志』『藝文志』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Dongkuksipji Yeamunji*

진 나 영(Na-Young Jin)\*  
송 일 기(Il-Gie Song)\*\*

### 목 차

1. 서 론	4.1 『동국십지』『예문지』의 체제
2. 찬자의 생애와 사상	4.2 분류체계의 비교 분석
3. 『동국십지』의 편찬 및 편성 체제	5. 『동국십지』『예문지』의 수록도서 분석
3.1 편찬 배경	5.1 국별 수록도서 분석
3.2 편성 체제와 내용	5.2 수록도서의 주제 분석
4. 『동국십지』의 『예문지』 분석	6.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1855(철종 6)년에 배상현(裴象鉉)이 저술한 문물 제도서인 『동국십지』의 10지(志) 중 하나인 『예문지』를 분석하였다. 『동국십지』『예문지』에는 고구려, 신라, 고려 및 조선의 서적과 중국의 서적 137종을 수록하고 있으며, 『예문지』 나름의 15류(類)의 분류 및 배열체계를 지닌다. 또한 『예문지』에서 서적의 수록은 편찬된 시대, 찬자(撰者), 서명(書名) 등 일부는 서적의 해제까지 불어 있다. 그러나 찬자 배상현의 분류체계는 『동국십지』가 모방한 『한서』『예문지』나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동국통지』『예문지』의 분류체계와 비교한 결과, 경서(經書) 등 일부분을 자세히 확립된 반면 일부 주제와 관련하여 체계가 설정되지 않았다. 『동국십지』『예문지』의 수록도서는 한국 친술도서와 중국 친술도서로 구별되며, 대부분 한국 친술도서로 구성되었다. 수록도서의 주제는 사부분류로 분석한 결과, 경(經) > 자(子) > 집(集) > 사(史) 순으로 많았으나 그 종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연구대상인 『동국십지』『예문지』는 통시대적이고 종합적 문물제도서로서, 비록 완벽한 체계와 내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개인의 힘으로 그 당시의 서적들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ongkuksipji's Yeamunji*, written by Bae Sang-hyun(裴象鉉) in 1855. *Dongkuksipji* is a kind of encyclopedia. *Dongkuksipji's Yeamunji* record 137 books written in Goguryeo, Silla, Goryeo, Joseon and China. *Yeamunji* has its own classification system which includes 15 different topics. But this classification system emphasizes too much some field, such as Chinese classics of Confucianism. *Yeamunji* contains information on the period of compilation, author, title, and some bibliographic introductions. Although *Dongkuksipji's Yeamunji* does not have a perfect system for its contents, it is worthy of notice because it is a large catalogue of ancient books compiled by just one person.

키워드: 동국십지, 한서, 예문지, 배상현, 분류체계

*Dongkuksipji, Hanseo, Yeamunji, Bae Sang-hyun, Classification System*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jny415@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1년 7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7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8월 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107-140, 2011.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3.107>)

## 1. 서 론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국가의 공식적 기전체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예문지(藝文志)」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정사를 편찬한 사관의 편사 선택의 문제이겠으나, 이후 한국 목록학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 이른 바 실학자로 분류되는 이궁익과 한치윤 등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정사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서목을 편찬하여 저술에 수록했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역대 왕 중에 『규장총목』 등 서목을 가장 많이 편찬한 임금은 정조이다. 우리 역사에서 정조는 성군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학문과 문화를 크게 진흥시켰기 때문이다. 주지하 다시피 학문의 바탕에는 모든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참고가 되는 「예문지」가 기본도구가 된다는 점에 있다.

한편 연구 대상 서목인 『동국십지(東國十志)』의 편찬자 배상현이 활동했던 조선 말기는 근대의 성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1811(순조 11)년에는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났고 1862(철종 13)년에는 진주민란, 동학농민운동 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이에 사회는 혼란하였고 경제도 폐단이 커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전환시키고자 문화적인 측면의 정비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국학의 부흥이 일어났다. 1814(순조 14)년에는 규장각(奎章閣)에서 정조의 『홍재전서(弘齋全書)』 100책을 인진(印進)하였다. 1845(현종 11)년에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증보(增補)하도록 하였

으며, 1861(철종 12)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및 기타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문물을 저술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鑒散稿)』가 있었다. 이 당시에 편찬된 저술들은 다양한 문물 및 정보들을 하나의 책으로 정리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서적 편찬에서 있어서 주목되는 점은 바로 전통적인 사서(史書)의 한 부분인 '지(志)'의 형태를 취하여 역대의 전장(典章)과 문물(文物)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유서(類書)가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에서 이러한 유서를 저술한 예가 있는데 관부에서 편찬된 대표적인 것으로는 1770(영조 46)년에 편찬된 조선의 문물제도를 분류·정리한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1903-1908년 사이에 고종의 칙명(勅命)으로 편찬 간행된 유서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가 있었다. 또한 개인이 편찬한 것으로는 배상현(裴象鉉)이 저술한 『동국십지(東國十志)』와 박주종(朴周鍾)이 저술한 『동국통지(東國通志)』 등이 있다. 특히 개인이 유서를 편찬했다는 것은 당대 시대상황을 반영한 학문적 특징 중 하나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동국십지』는 중국의 서적에서나 보았던 '지(志)'의 체계로 우리나라의 문물 및 제도를 정리를 한 종합적인 책이다. 이는 편찬자의 말대로 중국의 『한서(漢書)』의 '지(志)'의 체제를 따르고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 책은 가장 마지막에 「예문지」를 두어 우리나라에 통용되던 서적을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다. 즉, 『동국십지』의 「예문지」를 통해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서적들은 무엇이며, 이 서적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국십지』의 찬자인 배상현의 생애와 그의 사상을 알아보고 이러한 배경이 이 책의 편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동국십지』의 편성체제와 그 내용을 통해 지(志)의 체제가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지, 각각의 지(志)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서적을 분류하여 정리한 10번째 지(志)인 「예문지」는 그 체제와 내용을 비롯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에 수록된 서적들은 과연 어떤 유형의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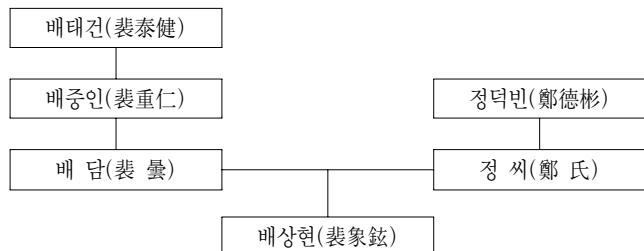
## 2. 찬자의 생애와 사상

연구 대상문헌인 『동국십지』를 편찬한 배상현(裴象鉉)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동국십지』 서문(序文)과跋文(跋文)을 통해서인데, 이를 살펴보면 배상현의 휘(諱)는 상연(相璉)이고, 자(字)는 여옥(汝玉), 호(號)는 오산(梧山)

이다. 배상현의 본관(本官)은 흥해(興海)인데, 『흥해배씨족보(興海裴氏族譜)』에 따르면 그는 1814(純祖 14)년에 태어났으며 1884(高宗 21)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족보를 근거하여 배상현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족보에 의하면 배상현의 증조부(曾祖父)는 배태건(裴泰健)이고 조부(祖父)는 배중인(裴重仁)으로 이들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별로 없어 한미한 양반계층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중추부(中樞府)에 있던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인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있었던 배담(裴曇)이었다. 또한 그의 외조부(外祖父)는 정덕빈(鄭德彬)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에 관한 사실도 확인하기 어렵다.<sup>1)</sup>

편찬자 배상현은 1837(憲宗 3)년에 진사(進士)에 오르고, 1849(憲宗 15)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과 이조정랑(吏曹正郎)을 역임하였다.<sup>2)</sup> 그는 1855(哲宗 6)년 여름, 칩거하던 중에 『동사잡기(東事雜記)』를 보다가 편람을 위하여 『한서(漢書)』 10지(十志)의 예를 모방하여 자료들을 유형별로 초록하여 모아서 한 책으로 만들어 그 이름



<그림 1> 배상현을 중심으로 한 가계도

1) 裴漢根. 1939. 『興海裴氏族譜』. 안동: 興海裴氏族譜所.

2) 『國朝文科榜目』, 憲宗 己酉 四月, 庭試別試 丙科.

을 『동국십지』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배상현은 『동국십지』의 찬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료가 많기 않았기 때문에 책의 내용과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는 1857(哲宗8)년 정5품 성균관 직강(成均館 直講)을 제수 받았고, 『동국십지』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래 되지 않아 다시 지방으로 체직(遞職) 되었다. 본인이 그동안 모은 것을 가져와서 보충하여 『동국십지』를 편찬하였으며, 이외에 그의 유고(遺稿) 5권과 『국창관록(菊窓盥錄)』이 있으나 간행되지는 않았다.

그의 학문적 사상 혹은 경향을 『동국십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동국십지』에는 퇴계 이황(退溪 李滉) 및 퇴계학파(退溪學派)와 관계되는 언설(言說) 등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예문지」에서 기재된 서적들은 주로 퇴계학파와 관련된 서적이 많고, 이황의 발문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보면 배상현은 이황 및 그의 학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동국십지』의 서문과 발문을 쓴 이만인(李晚寅)과 강진규(姜晉奎) 그리고 박주종(朴周鍾)은 배상현의 만사(輓詞)를 쓴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또한 강진규, 이만인도 박주종

과 친분을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일부나마 배상현의 학문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서문을 썼던 이만인(李晚寅, 1834-1897)은 본관이 진성(眞城)이며 자(字)는 군택(君宅)이고 호(號)는 용산(龍山)이다. 그의 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郎)을 지낸 휘교(彙喬)이고, 어머니는 한양 조씨로 병주(秉周)의 딸이다. 그는 외가인 영양(英陽) 주곡(注谷)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외증조였던 심재(心齋) 옹(翁)에게 수학하였는데 상세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해를 잘하여 이만인이 12~13세에 이미 경전에 통달하였다고 한다. 만년에는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제수되었다. 그의 학문이 뛰어나 원근(遠近)에서 사례(師禮)로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으나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후 그 마음이 성실하면 받아들였다. 이만인은 주로 이황(李滉)의 「성학십도략(聖學十圖略)」·「태극도(太極圖)」·「대학지지(大學知止)」·「심통성정(心統性情)」·「예설(禮說)」·「성리설(性理說)」 등을 논술하였다. 이를 통해 이만인은 이황의 학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계승·발전시켰다. 즉 이만인은 이황의 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발문을 쓴 강진규(姜晉奎, 1817-?)



<그림 2> 배상현(裴象鉉)의 친분 관계

3) 朴周鍾, 『山泉先生文集』, 卷2 「輓裴連玉象鉉」.

는 본관이 진주(晋州)이며 자(字)는 진오(晉五)이고 호는 역암(櫟庵)이다. 그는 이황을 사숙(私淑)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이황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강진규는 1845(현종 11)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성균관박사와 전적(典籍)을 지냈고, 1864(고종 1)년 사헌부장령을 거쳐 예조참판에 이르렀다. 특히 그는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에도 능하여 금산사(金山寺)·태고사(太古寺) 등 사찰에 관한 내용이 많다. 강진규는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천주학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반대하여 1881년 『척사소(斥邪疏)』를 올려 사학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영남유생들에게 통문을 보내 연합전선을 펴면서 개화정책을 반대하다가 이만손(李晚孫)과 함께 유배되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친분이 있었던 박주종(朴周鍾, 1813-1887)은 본관이 함양(咸陽)이고, 자는 문원(聞遠)이며 호는 산천(山泉)이었다. 그의 학문은 퇴계학을 근간으로 하는 함양 박씨 가문 내에서의 가학(家學)을 잇고 있다. 5살 때부터 집안의 학자였던 박기녕(朴箕寧)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학행이 순수하고 독실하였고 문장은 박학하고 웅장하였다.<sup>4)</sup> 여러 번 향시에 합격은 하였으나 문과에 급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1863(철종 14)년 삼정(三政)의 실무에 관해 올린 8개의 대책이 으뜸을 차지하여 『주자백선(朱子百選)』·『아송(雅頌)』을 하사받았다. 1868(고종 5)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서원 철폐령을 내려 서원을 폐쇄하자, 영남 선비들과 함

께 1877(고종 14)년 서원 복원을 위한 상소를 올리는데 앞장섰다. 저서로는 『동국통지(東國通志)』·『면학유감(勉學類鑑)』·『사칠고증(四七攷證)』·『향약집설(鄉約集說)』 등이 있으며, 유집(遺集)이 있다. 이 중 『동국통지(東國通志)』는 단군 아래 조선 순조(純祖) 때까지 한국 역사를 기전체(紀傳體) 형식에 따라 14개의 지(志)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는 그의 벗 이었던 배상현의 『동국십지』의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찬자 배상현과 친분이 있었던 이만인, 강진규, 박주종을 생애와 학문적 성향을 파악해보았는데, 이들은 대체로 영남의 퇴계학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이로 보아 배상현의 사상과 학문적 성향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상현이 퇴계학만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동국십지』을 살펴보면 배상현은 기자(箕子)에 대한 사항은 서명옹(徐命膺)의 『기자외기(箕子外紀)』에서 인용하고 있고,<sup>5)</sup> 『지리지(地理志)』에서는 한백겸(韓百謙)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택리지(擇里志)』의 풍속관계에 관한 기사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배상현은 『예문지』에서 남구만(南九萬)의 당시의 문제가 신기함만을 찾는 것을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였다. 이를 통해 배상현은 '지(志)'의 체재로 『동국십지』를 친술하면서 그 특성상 특정한 학파의 학문만을 수용하지 않고 다양한 학파에 속한 학자들의 주장을 포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朴仁鎬. 1990. 東國十志와 東國通志에 대한 研究. 『淸溪史學』, 9: 209.

5) 『東國十志』, 卷1 「禮樂志」.

### 3. 『동국십지』의 편찬 및 편성 체제

#### 3.1 편찬 배경

배상현은 1855(철종 6)년 여름, 침거하던 중에 『동사잡기(東事雜記)』를 보다가 편람을 위하여 『한서(漢書)』 10지(十志)의 예를 모방하여 자료들을 유형별로 초록하여 모아서 한 책으로 만들어 그 이름을 『동국십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료들을 많이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간략하였고 자세히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1857(철종 8)년 배상현은 성균관 직강(成均館 直講)을 제수 받고 임명된 후, 바로 존경각(尊經閣)에 나아가 자신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 『문헌비고(文獻備考)』를 찾아보았으나 그 역시 많이 산일(散逸)되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여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남아 있는 것을 초록하여 취하였으나 곧 체직(遞職)하여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내려올 때 그는 편집한 것을 가져와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sup>6)</sup>

이만인의 서문에 의하면 그는 배상현과 1858년과 1859년에 성균관에서 함께 활동하였는데 이때 배상현으로부터 『동국십지』의 편찬의 뜻을 들었다고 하였다. 강진규 또한 배상현과 성균관에 있을 때, 배상현이 항상 집필의 뜻을 밝혔고 강진규에게 서문을 구하였다. 그래서 강진규는 그 책이 완성되기를 기다렸고 또 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배상현은 끊임없이 『동국십지』의 편찬을 위해 노력하였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

했음을 알 수 있다. 배상현의 노력으로, 그는 1862년 종이를 얻게 되어 『동국십지』를 2권의 책으로 정사(精寫)하였다. 2권의 책으로 필사되었던 『동국십지』가 현존하는 책의 체재로 구성되어진 것은 1889년으로, 이만인이 배상현의 손자 배홍주(裴興周)의 청으로 책의 체재 및 내용을 약간 산삭(刪削)하고 조정하여 목판본 3권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배상현은 스스로 권면(卷面)에 '찬차미정(撰次未定)'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그 자신이 시골의 궁벽(宮辟)한 선비여서 조야(朝野)의 모든 장서를 참고할 수 없었으므로 그리 완비된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겸양한 의미이다.

찬자 작성한 『동국십지』의 편차와 함께 그의 서문을 살펴보면 삼정(三政)과 성보(城堡)는 따로 언급되어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용은 삼정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별도로 식화의 뒤에 삼정을 서술하였고, 나라의 비어(備禦)와 성보는 중요한 것이므로 별도로 성보를 지어 지리의 뒤에 덧붙인다고 하였다. 즉 배상현이 삼정과 성보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가 『동국십지』를 편찬하는 데 있어 경세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배상현의 의지는 재정문제에 있어서 전제(田制)를 개정하고 절검하기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가장 문란하였던 삼정의 해결을 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편찬자 배상현의 현실 의식이 투영된 것이다. 그리고 성보와 나라 변방의 방비를 중시함으로써 당시 외세의 침략이 서서히 다가오던 때에 자존의식을 가진 지방 유생으로서 배

6) 『東國十志』, 卷1 「序」.

상현의 강렬한 애민의식을 엿볼 수 있다.<sup>7)</sup>

배상현은 자신만의 경세와 자국의식을 가지고 『동국십지』를 '지(志)'라는 체계를 통해 저술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이를 문물의 역사적인 연원을 살폈으며 또한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함으로써 그 변화과정을 나름의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하려고 하였다. 강진규의 발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전에는 여러 자료를 널리 모아 하나의 관점에서 적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상현이 『동국십지』를 편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 『동국십지』의 서문과 발문을 비롯한 여러 사항을 종합해보면, 배상현은 나라에 있어 문물의 역사, 연원, 발전 등을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한 것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비록 시골에 있는 선비로서 많은 자료를 폭넓게 섭렵하지는 못했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료를 널리 모아 경국(經國) · 경세(經世)와 자국의식을 가지고 여러 방면의 요소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던 결과 곧 『동국십지』의 편찬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 3.2 편성 체제와 내용

#### 3.2.1 편성 체제

찬자 배상현은 이 책의 서명과 같이 반고(班固)의 『한서』 십지(十志)를 모방하여 동국에 관한 십지(十志)로 구성하였다. 이 책은 3권 3책인데, 권1에서는 「율력지(律歷志)」 · 「예약지(禮樂志)」 · 「형법지(刑法志)」 · 「식화지(食

貨志)」, 권2에서는 「인사지(禋祀志)」 · 「천문지(天文志)」 · 「오행지(五行志)」, 권3에는 「지리지(地理志)」 · 「제언지(堤堰志)」 · 「예문지(藝文志)」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지(志)의 첫머리와 마지막에는 반드시 자신의 입론을 내세워 각 지(志)의 취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일체의 제도와 규범을 포함한 체제를 인용하였다. 『한서』는 중국에서 최초로 편찬된 완벽한 기전체의 단대사(斷代史)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전한(前漢)의 210년간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했는데, 12개의 본기(本紀), 8개의 표(表), 10개의 지(志), 70개의 열전(列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서』의 10지(志)는 「율력지」 · 「예약지」 · 「형법지」 · 「식화지」 · 「교사지(郊祀志)」 · 「천문지」 · 「오행지」 · 「지리지」 · 「구읍지(溝泣志)」 · 「예문지」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한서』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사기(史記)』를 계승했다. 반고는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는 『사기』의 「세가(世家)」를 삭제하여 제기(帝紀), 표(表), 지(志), 열전 4부분으로 개편했다. 그 중 '십지'는 『사기』의 '서(書)'를 고쳐 만든 것인데, 예서(禮書)와 악서(樂書)를 합해서 예약지라 하고, 율서(律書)와 역서(曆書)를 합해서 율력지라 했다. 그리고 평화서(平淮書)를 식화지로, 봉선서(封禪書)를 교사지로, 천관서(天官書)를 천문지로, 하거서(河渠書)를 구역지로 고쳤으며, 형법지, 오행지, 지리지, 예문지를 새로 추가했다. 이와 같은 체제의 변화를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朴仁鎬. 1990. 東國十志와 東國通志에 대한 研究. 『淸溪史學』, 9: 202-203.

〈표 1〉 『사기』 및 『한서』와 『동국십지』의 체제 비교

『史記』	『漢書』	『東國十志』
예서(禮書)	율력지(律歷志)	율력지(律歷志)
악서(樂書)	예악지(禮樂志)	예악지(禮樂志)
율서(律書)	형법지(刑法志)	형법지(刑法志)
역서(曆書)	식화지(食貨志)	식화지(食貨志)
천관서(天官書)	교사지(郊祀志)	인사지(禋祀志)
봉선서(封禪書)	천문지(天文志)	천문지(天文志)
하거서(河渠書)	오행지(五行志)	오행지(五行志)
평회서(平淮書)	지리지(地理志)	지리지(地理志)
8서(書)	구혁지(溝泣志)	제언지(堤堰志)
	예문지(藝文志)	예문지(藝文志)
	10지(志)	10지(志)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동국십지』에서는 『한서』의 「교사지(郊祀志)」가 「인사지(禋祀志)」로, 「구혁지(溝泣志)」가 「제언지(堤堰志)」로 변하였다. 그리고 식화지 뒤에 삼정(三政)이 그리고 지리지 뒤에 성보(城堡)가 부록으로 붙어 체제상의 변화가 있었다. 그 이유는 찬자 배상현이 '교사'는 노(魯)의 교체(郊禘)와 같은 것으로 예(禮)가 아니기 때문에 '교(郊)'를 '인(禋)'으로 바꾸었고, '구읍'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지(井地)를 행하지 않아 구혁의 제도가 없으므로 하천과 관계된 '제언'으로 바꾸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언사(堤堰司)가 있기 때문이다.<sup>8)</sup> 『한서』와 『동국십지』의 체제를 비교한 결과, 배상현이 밝힌 바와 같이 두 체제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체제로 구성되었다.

배상현에 의해 『한서』의 체제를 모방한 『동국십지』보다는 더 늦게 편찬되었으나 편찬함

에 있어서 이 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주종의 『동국통지(東國通志)』의 지(志)의 체제를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박주종이 고종 5(1868)년에 편찬한 『동국통지』는 「천문지(天文志)」·「오행지(五行志)」·「율력지(律歷志)」·「지리지(地理志)」·「제사지(祭祀志)」·「예악지(禮樂志)」·「병위지(兵衛志)」·「형법지(刑法志)」·「식화지(食貨志)」·「예문지(藝文志)」·「학교지(學校志)」·「선거지(選舉志)」·「백관지(百官志)」·「여복지(輿服志)」 등 14개의 지(志)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동국십지』는 10개의 지(志)만을 지니고 있으며, 『동국십지』의 제언지(堤堰志)는 『동국통지』에 해당하는 지(志)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동국통지』의 「병위지」·「학교지」·「선거지」·「백관지」·「여복지」는 『동국십지』에 서는 찾을 수 없고, 새로 추가된 것으로 확인

8) 朴仁鎬. 1990. 東國十志와 東國通志에 대한 研究. 『淸溪史學』, 9: 204.

〈표 2〉 『동국십지』와 『동국통지』의 체제 비교

『東國十志』	『東國通志』
율력지(律歷志)	천문지(天文志)
예악지(禮樂志)	오행지(五行志)
형법지(刑法志)	율력지(律歷志)
식화지(食貨志)	지리지(地理志)
인사지(禋祀志)	제사지(祭祀志)
천문지(天文志)	예악지(禮樂志)
오행지(五行志)	병위지(兵衛志)
지리지(地理志)	형법지(刑法志)
제언지(提壠志)	식화지(食貨志)
예문지(藝文志)	예문지(藝文志)
10志	14志

된다. 추가된 5개의 지(志)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위지』에서는 역대병제(歷代兵制) · 법령(法令) · 부신(符信) · 군훈련(軍訓鍊)에 관한 사항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학교지』에서는 성균관 제도를 기술하고 태학(太學) · 문묘(文廟)를 비롯하여 역대의 각종 교육기관 · 학령(學令) · 사학(私學) · 향교(鄉校) · 서원(書院) 등을 기술하고 있다. 『선거지』에서는 역대 과거제도의 과목 · 시관(試官) · 현량과(賢良科) · 종친과(宗親科) · 도과(道科) · 문신중시(文臣重試) · 잡과(雜科) 등을 비롯하여 관리임용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백관지』에서는 기사(耆社) · 종친 · 상부(相府) · 문관 · 승정원 등 중앙관직, 외관(外官) · 외무관(外武官) 등 지방관직뿐만 아니라 내직(內職) · 내시(內侍) · 토관(土官) · 향직(鄉職) 등 말직(末職)에 이르기까지의 연혁 및 녹봉기준(祿俸基準)까지 자세히 기재

하였다. 『여복지』에서는 왕관복(王冠服) · 제복(祭服) · 왕비관복(王妃冠服) 등의 관복(冠服)과 거여(車輿)를 다루고 있으며 인장(印章)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동국십지』의 『인사지(禋祀志)』는 『동국통지』에서는 그 명칭을 바꾸어 『제사지(祭祀志)』로 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즉 『동국통지』의 체제가 『동국십지』의 체제를 모두 아우르면서도 『동국십지』에서는 다루지 않은 사항까지 범위에 넣어 저술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배상현의 『동국십지』는 『동국통지』에 비하여 비교적 소략한 것으로 자료상 충실한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동국십지』의 편성 체제는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어 어느 한 쪽 분야에 치우치거나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찬자 배상현이 잘 알고 있거나 참고자료가 많은 주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모르거나

참고자료가 적은 주제는 체제의 구성으로 설정되지 않았거나 개설적인 내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 3.2.2 편성 내용

우리나라의 문물제도서인 『동국십지』는 10개의 지(志)로 그 편성 체제를 구성하였는데 각각의 지(志)의 내용과 특징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율력지(律歷志)』는 우리나라 도량과 역법에 관한 내용을 수(數) · 성(聲) · 도(度) · 양(量) · 권형(權衡) · 역수(歷數; 歷代歷數)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 지(志)에서는 '술작지 성(述作之盛)'이 조선에 있어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전헌(典憲)도 갖추게 되었음을 적고 있다.

둘째, 『예악지(禮樂志)』는 우리나라 예속에 관한 제도로 역대의 제복(祭服) · 제기(祭器) · 악기(樂器) · 악장(樂章) · 가곡(歌曲) 등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조화(調和)를 위한 악(樂)과 계서(階序)를 위한 예(禮)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우리나라 예악제도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셋째, 『형법지(刑法志)』는 엄격한 형정(刑政) 시행의 원칙 아래에서 형제(刑制) 일반을 기술하고 있다.

넷째, 『식화지(食貨志)』는 우리나라의 전제(田制)와 전폐(錢幣)를 기술하였고, 당시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었던 삼정(三政)에 관한 사항으로는 결(結) · 환(還) · 포(布)에 대한 문제를 기재하고 그 폐단의 원인을 살폈다.

다섯째, 『인사지(禋祀志)』에서는 우리나라가 단군 아래 제천단(祭天壇)을 설치하고 역대로

인습하였으나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폐하여졌으므로 교사(郊祀)를 인사(禋祀)로 고치어 기재한다고 하였다. 상(上)편에서는 역대의 사직(社稷)과 오묘(五廟) · 종묘(宗廟) · 궁묘(宮廟)에서의 제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하(下)편에서는 제천단 및 풍운뇌우(風雲雷雨) 및 산천성황단(山川城隍壇)에서의 제향에 대하여 기재하였다.

여섯째, 『천문지(天文志)』는 천문의 변화를 인사(人事)의 득실(得失)과 왕정(王政)의 미악(美惡)에서 나온 것이라는 전통적인 천문관에서 우리나라의 천문에 관한 사실을 수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성(經星) · 위성(緯星) · 천성(祿星) · 운한(雲漢) · 일중(日衆) · 일행(日行) · 풍(風) · 운(雲) · 뇌전(雷電)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일곱째, 『오행지(五行志)』는 오행을 통해 음양(陰陽)의 변화하는 이치를 논한 것이다. 이 지(志)의 편찬 목적은 『한서』 지(志)의 점결(占決)을 이끌어 역대의 재상(災祥)을 보는 것에 대비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여덟째, 『지리지(地理志)』로서 우리나라 역대의 지리와 관방(官方)에 관한 사실을 역대(歷代) · 경기도(京畿道) · 호서(湖西) · 호남(湖南) · 영남(嶺南) · 해서(海西) · 관서(關西) · 성보(城堡) · 외교(外交) · 탐라(耽羅) · 울릉(蔚陵) · 대마(對馬) · 말갈(靺鞨) 등의 순서대로 기재되었다. 우리나라 상고사의 역사자리는 대체로 『승람(勝覽)』의 설을 따르고 있으면서, 각 지역의 풍물은 『택리지(擇里志)』를 인용하고 있다.

아홉째, 『제언지(堤堰志)』에서는 우리나라의 하천을 대천(大川)과 세천(細川)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끝으로 「예문지(藝文志)」에서는 우리나라의 서적을 역리(易理) · 시(詩) · 예악(禮樂) · 춘추(春秋) · 논어(論語) · 효경(孝經) · 소학(小學) · 시부(詩賦) · 소설가(小說家) · 유가(儒家) · 농가(農家) · 병가(兵家) · 음양가(陰陽家) · 복서가(卜筮家) · 의방가(醫方家)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중국 옛 성인의 유품(遺風)을 이은 조선왕조의 전통문화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했듯이 자료들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바로 『동국십지』의 한계점이 된다. 찬자 배상현은 『동국십지』를 저술하기 위해 그가 자서(自序)에서 밝혔듯이 『동국문헌비고』를 참고하였는데, 그 영향으로 『동국십지』는 『동국문헌비고』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조선 이전 시대인 경우에는 문화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리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우는 배상현이 관심이 있었거나 잘 알 수 있었던 삼정, 예론, 외교, 제사 등 일부 분야만이 정리되었으나 그다지 세밀하지 못하였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는 제도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책의 중점이 천문 · 오행 · 예악 · 제사 등 문화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책들과의 체계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 · 백관 · 병위와 같은 정치 · 군사적인 분야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내용적으로도 정치나 군사적인 현실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내용을 수록하지 못하여, 다만 조선시대 문물 제도의 정비를 나타내는 문화적 지준의식을 보이는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국십지』는 비록 완벽한 장고(掌故)적인 내용은 갖

추지는 못했으나 경세를 위하여 일정한 관점에서 이전 시대의 전장제도를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사찬(私撰)으로서는 조선시대 최초의 '지(志)'의 체계를 갖춘 종합적인 문물제도로서 그 가치가 높다.

#### 4. 『동국십지』의 「예문지」 분석

이 장에서는 『동국십지』 「예문지」의 체제를 수록범위, 분류체계 및 내용, 서지적 기술법 등을 살펴보자 한다. 이를 토대로 『동국십지』의 전형(典刑)인 『한서』의 「예문지」와 『동국십지』와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박주종의 『동국통지』의 「예문지」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동국십지』 「예문지」 분류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본다.

##### 4.1 『동국십지』 「예문지」의 체제

###### 4.1.1 수록범위

『동국십지』 「예문지」에 수록된 서목(書目)은 중국의 서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구려(高句麗)의 『오언시(五言詩)』, 신라(新羅)의 『격문(檄文)』 등을 비롯하여 고려(高麗), 조선 순조(純祖)조까지의 저술 된 서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국십지』에서는 삼국시대인 고구려, 신라를 거쳐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간행된 서적을 전체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예문지」에 수록된 서목(書目)을 시대(時代)와 배열체계(排列體系)로 구분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예문지」에 수록된 시대별 서적

구분	한국			중국	합계(종)	비율(%)
	삼국	고려	조선			
역리(易理)	0	1	17	2	20	14.6
시(詩)	2	9	9	3	23	16.8
예악(禮樂)	0	3	8	4	15	10.9
춘추(春秋)	0	2	8	2	12	8.8
논어(論語)	0	0	7	8	15	10.9
효경(孝經)	0	1	6	2	9	6.6
소학(小學)	0	0	11	2	13	9.5
시부(詩賦)	0	0	0	0	0	0
소설가(小說家)	0	3	7	0	10	7.3
유가(儒家)	0	0	0	0	0	0
농가(農家)	0	0	4	1	5	3.6
병가(兵家)	0	0	6	2	8	5.8
음양가(陰陽家)	0	0	2	0	2	1.5
복서(卜筮)	0	0	0	1	1	0.8
의방가(醫方家)	0	0	4	0	4	2.9
합계	2	19	89	27	137	100
비율	1.5%	13.9%	64.9%	19.7%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 저술된 서적이 2종, 고려 19종, 조선 89종 및 중국에서 저술된 서적 27종으로 모두 137종의 서목을 수록하고 있다. 찬자 배상현이 『동국십지』 찬술을 위해 보았거나 참고하여 이를 「예문지」에 수록한 서적의 비율을 살펴보면, 시대상으로는 삼국시대 1.5%, 고려시대의 서적 13.9%이며 조선시대의 서적이 64.9%였다. 이는 찬자가 대부분 조선시대에 저술된 서적을 많이 참고하였고 그 서목을 수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시대별 서적에 관한 분석은 5장에서 하도록 하겠다. 또한 찬자 배상현이 나름의 분류체계로 서적을 구분하였는데 류별로 시(詩), 역리(易

理), 예악(禮樂), 논어(論語) 등의 순으로 도서를 기재하였다.

『동국십지』 「예문지」에 수록된 서적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예문지」와 같은 성격을 지닌 서적들과 비교해보면 『증보문헌비고』 「예문고(藝文考)」는 모두 2,217종의 서목이 수록되어 있고,<sup>9)</sup> 한치윤(韓致齋)이 우리나라 역사를 저술한 『해동역사(海東繹史)』 「예문지(藝文志)」에는 모두 545종의 서목을 수록하고 있으며,<sup>10)</sup> 박주종이 저술한 『동국통지』 「예문지」가 모두 2,161종의 서목을 수록하고 있는 반면<sup>11)</sup> 『동국십지』 「예문지」에 수록된 137종의 서목은 그 양이 매우 적음을 확인

9) 鄭光水, 1990. 增訂文獻備考의 藝文考 研究. 『書誌學研究』, 5·6: 417.

10) 金鍾天, 1980. 『海東繹史 藝文志 研究』.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92-97.

11) 閔泰熙, 1989. 『東國通志의 藝文志 研究』.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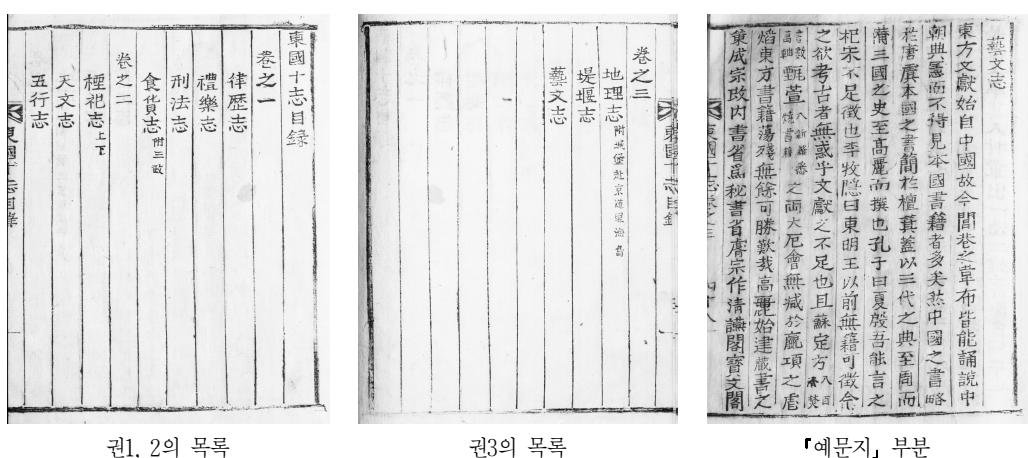
할 수 있다. 이는 『동국십지』가 개인의 힘으로 저술되었으며, 또한 참고하였던 서적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배상현은 『동국십지』『예문지』를 15가지 류(類)인 역리(易理) · 시(詩) · 예악(禮樂) · 춘추(春秋) · 논어(論語) · 효경(孝經) · 소학(小學) · 시부(詩賦) · 소설가(小說家) · 유가(儒家) · 농가(農家) · 병가(兵家) · 음양가(陰陽家) · 복서(卜筮) · 의방가(醫方家)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서적을 수록하였다. 각각 류(類)에 기록된 서적의 수는 시류(詩類)가 가장 많았고, 역리류와 논어류, 예악류, 춘추류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시부류나 음양가류, 복서류 등은 그 수록된 서적이 적었다. 수록된 서적이 많은 류(類)들은 대부분 경(經)과 관련된 분야로 배상현이 다른 분야보다는 평소 본인이 공부를 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이를 『예문지』에 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4.1.2 분류체계 및 내용

배상현은 『동국십지』를 3권으로 구성하였는데 이중에서 『예문지』는 권3에 수록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분량이다. 그러나 찬자는 『예문지』 안에 여러 서적을 자신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구분해놓았다. 배상현은 그가 편찬한 서목에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서적을 역리(易理) · 시(詩) · 예악(禮樂) · 춘추(春秋) · 논어(論語) · 효경(孝經) · 소학(小學) · 시부(詩賦) · 소설가(小說家) · 유가(儒家) · 농가(農家) · 병가(兵家) · 음양가(陰陽家) · 복서(卜筮) · 의방가(醫方家) 등 15류(類)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이처럼 15유형으로 구분된 『예문지』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총서에는 문헌이 중국에서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서적은 많이 볼 수 없었으나 단군 · 기자 시대를 시작으로 삼국, 고려에 이르렀다고 했다. 백제 때 소정방(蘇定方)과 신라 때의 견훤(甄萱)이 서적을 불태워 많은 양을 유실하



〈그림 3〉 『동국십지』 서영(書影)

였고, 고려에 이르러 장서(藏書) 정책을 세웠으며 조선에 들어서는 많은 왕들이 장서를 할 장소를 세워 서적을 인출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소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12)</sup>

역리류(易理類)는 학문의 근원으로서, 역(易)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전래되는 과정을 밝혔다. 또한 시대별로 역리류에 해당하는 서적들을 그 찬자와 서명(書名)과 함께 간단한 해제를 기재하였다. 고려조에 윤언이(尹彦頤)는 『역해(易解)』를 지었고, 『정전(程傳)』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역학(易學)이 우탁(禹倬)에 의해 주해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쌍호 선생(雙湖先生)이 지은 『계몽익전(啓蒙翼傳)』이 널리 배포되었다. 또한 김안국(金安國)과 그의 동생 정국(正國)은 계몽(啓蒙; 호씨의 격몽(擊蒙) 등 모든 것들에 의거하여 『계몽도서절요(啓蒙圖書切要)』를 주성(湊成)하였다. 퇴계 이황은 『계몽전의(啓蒙傳疑)』를, 여현(旅軒) 장현광(張顯光)은 『역학도설(易學圖說)』을 찬술하였고, 이밖에 『주

역구결(周易口訣)』, 『전모훈고(典謨訓誥)』 등이 있다.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법이나 전(典)인 『경국대전(經國大典)』, 『치평요람(治平要覽)』 등도 이 역리류에 함께 기재하였다.<sup>13)</sup> 즉 역리류에서는 이처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저술된 20종의 서목을 수록하고 있다.

시류(詩類)는 후에 사부(詞賦)로 불리기도 하고, 대체로 시가(詩歌)를 말한다. 시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나 초기에는 천하고 음운(音韻)이 맞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의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오언시(五言詩)를 짓기 시작하여 이것이 신라까지 이어졌고, 최치원(崔致遠)은 당(唐)나라에서 『격문(檄文)』을 지어 문장으로 천하에 이름을 날렸다. 고려 초기 문풍(文風)이 성하여 이규보의 『위심시(違心詩)』 10구 등이 있었고,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황화시(黃花詩)』,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북관시(北關詩)』 등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가(詩歌)를 주고받았다. 조선조에도 서거정(徐居正)이 『동문선(東

12) 『東國十志』, 卷3 「藝文志」.

東方文獻始自中國故今閨巷之韋布皆能誦說中朝典憲而不得見本國書籍者多矣...蓋以三代之典至周而備三國之史至高麗而撰也...且蘇定方(入百濟焚書數萬軸)甄萱(入新羅悉燒書籍)之兩大厄會減於嬴項之○焰東方書籍蕩殘無餘可勝歎哉. 高麗始建藏書之策.

13) 『東國十志』, 卷3 「藝文志」.

易理學之宗後世卜筮其流也 歷三古更三聖而成焉 其博如天地明如日月信如四時驗如鬼神豈可易言哉 然文王續易乃箕子明夷之時也其卜筮之東也(箕子之來東中國人五百詩書禮樂醫藥卜筮陰陽方技隨之) 必有宓戲八卦文王重爻隨之矣 其後不知何時并得周公孔子所繫之辭也 高麗睿宗置七齋以取士首曰麗澤而治易者居之 仁宗時司業尹彦頤作易解然則易教之行於東方尙矣 其程傳則忠烈王時始得而祭酒禹倬閉門參究月餘乃解教授生徒東方易學自此始明 故退溪李先生名其俎豆之所曰易東祭酒之宗後孫性傳(號秋淵溪門人)用工於易象得雙湖先生所著 啓蒙翼傳藏諸易東書院後鍛板廣布(退溪有跋文) 慕齋金安國與其弟正國因啓蒙(胡氏擊蒙)等諸者而湊成啓蒙圖書切要(退溪有識文) 退溪撰啓蒙傳疑 旅軒張顯光撰易學圖說簡易崔豈守杆城時上周易口訣○四○書記言典謨訓誥誓命皆言也 故曰言爲尙書後世史家其流也 孔子編書上斷於堯下訖於堯其蹟而心法著焉其道備矣 然洪範箕子所陳微子又記父師之語箕子之辭則其隨而東者意盤庚以前書也全書則必得於是後耳 高麗置七齋書曰待聘而治書者居之 國朝說明經貢舉之法書居其一書之爲教亦至矣 且自本國所著書足爲後世典則龜鑑者如 世祖朝之經國大典 成宗朝之大典續錄 英宗朝之續大典皆本乎 世宗所纂六典而作卽書之周官立政也 世宗朝之治平要覽絲綸全集(鄭麟趾所撰) 英宗朝之君鑑一篇 純祖朝之謨訓輯要及親製君德君道等篇皆爲戒後王而作卽書之伊訓無逸也 端宗朝文襄公梁誠之依皇極方位作小圖以進其綱一十有九其目九十有一名曰治平圖又有崔豈所著洪範學記五百餘言東陽尉申翊聖所著皇極經世東史補篇.

文選)』을 지었고, 난설헌(蘭雪軒) 허씨 등 부인(婦人)들도 시를 지었다.<sup>14)</sup> 이 시류에서는 다른 류(類)와는 달리 고구려부터 조선까지, 그리고 중국의 서적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그 종수는 23종으로 가장 많다.

예악류(禮樂類)는 예문(藝文)의 근본으로 그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고려조에는 중국의 『예경(禮經)』을 비롯하여 『고례(古禮)』에 의거하여 최윤의(崔允儀)가 『고금상정예문(古今詳定禮文)』 50권을 지었고, 충렬왕 때 유승(柳陞)이 『신의(新儀)』을 지었다. 조선조에 들어서는 왕들이 명하여 친술한 서적들을 볼 수 있는데, 문종(文宗)이 어효첨(魚孝瞻)에게 명하여 『예기(禮記)』에서 중요 부분만 뽑아 『예기일초(禮記日抄)』를 짓게 했고, 세조(世祖)

는 『오례』를 증손(增損)하여 『오례의(五禮儀)』를 편찬하게 했다. 영조(英祖)는 이덕수(李德壽) · 이종성(李宗城) 등에게 명하여 『속오례의(續五禮儀)』를 편찬하게 하는 등 조선조 왕들이 예악과 관련된 서적 편찬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악서(樂書)의 저작은 동방에서 듣기 어렵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서적은 기재하지 않고 있다.<sup>15)</sup> 배상현은 예악류에 모두 15종의 서적을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해제를 덧붙였다.

춘추류(春秋類)는 조빙(朝聘) · 정벌(征伐) 등의 일[事]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등을 공부하였으며, 김부식은 『삼국사(三國史)』, 민청(閔淸)은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찬했다. 조선조 세

14) 『東國十志』, 卷3 「藝文志」.

詩者情之發而聲之文也 後世詞賦其流也 孔子編詩多文王以後之詩則隨箕聖而來者非孔子所編之周詩而如宋之商頌之類是也 蓋旣有聲樂便有詩歌故書曰詩言志歌末言又曰工以納言時以賜之然則箕聖之時必有虞夏商之詩著 在王府而至孔子時皆散亡遺佚僅存者或見於書(寶歌之類)於史(南風景星之類)然亦無幾 故純取周詩上採殷下取魯而止耳蓋其爲教上而天道之精微下而人情之委曲以至於鳥獸草木之變化莫不畢載而所以修齊平均之道亦不外乎是矣 東方初有歌曲而卑野不協音韻 自高句麗乙支文德創爲五言詩作者相繼新羅之末 崔文昌致遠年十二入唐爲高駢作檄文屈黃巢文章名天下 麗初詩賦貢舉之法出自唐人雙冀而文風始盛於是金富軾(撰三國史)李白雲奎報(有違心詩十句)李益齊齊賢(有四皓歸漢詩及范蠡詩)崔拙翁灑(有倪山隱者傳又有太公釣圖詩及雨荷詩)皆以文章名 其裏柳思菴淑(有碧瀾渡詩)李牧隱(有對黃花詩)李陶隱崇仁(有揭幢詩河浩亭云陶隱詩優於陽材然陶隱頗加雕琢)鄭圃隱夢周(有北闕詩)元耘谷天錫(牧隱謫居耘谷往見之多有酬唱)諸公相與酬唱以泄其患賢人失志之賦又作矣 牧隱之自元東歸翰林歐陽玄(號圭齋)歎曰吾衣鉢當徒海外傳之於君 國朝 世宗命集賢殿學士賜暇讀書課製各體及集賢殿罷 成宗修龍山廢寺各曰讀書堂(中宗朝又謂東湖堂栗谷在湖堂製進東湖問答數萬言)使○○令節賜宴所製詩文提學科次勸課時人謂之文章接鴻儒鉅擘皆出其時梁文襄誠之撰 列聖御製詩徐文忠居正(號四佳)撰東文選一百三十卷及太平閑話東人詩話又與天使相酬唱詩見於倪學士遼海篇祁戶部皇華集及次祁順張瑾登樓賦六十餘韻(洪虛白堂貴達公作)并播於中國姜仁齋希顏詩似韋柳畫似劉郭書兼王趙世稱三絕車五山天輅與王駱相上下嘗作統軍亭序流人 中朝學士語我國使臣曰千年已絕之調出於海外其與前後作者不可勝記而金佔俾宗直吊義帝文曹頤齋友仁西宮律詩許眉叟穆退潮碑文皆一是盛傳也蘭雪軒許氏白玉樓上樸文玉峰李氏魯山墓詩出於婦人之作而逼得風騷家

15) 『東國十志』, 卷3 「藝文志」.

禮樂之說已詳於本志而禮者儀也序也樂者德之寓也 其爲藝文之本顧不重歟 漢書曰東人好禮讓又曰其俗以禮相交蓋以其有仁賢之化也 高麗立七齋周禮曰求人戴禮曰服膺則禮經之出於東方尙矣 又自國中依古禮參以國制著爲一代之禮毅宗時崔允儀撰古今詳定禮五十卷忠烈王時柳陞榜禮新儀時人通用之 國初制度新創儀又未備陽村權近考定禮經又辨論五經難釋者目曰淺錄 世宗命許稠撰五禮我 朝制作大抵始此 文宗進講禮記魚孝瞻因博采諸家要說名曰禮記日抄命八內藏及 世祖朝又因五禮增損爲五禮儀凡京外大小常變皆按行之然先儒病其繁縝多不合古禮 英宗命李德壽李宗城等撰續五禮儀於是門戶整齊考据甚詳先是 仁祖朝文元公金長生因申公義慶所著定爲喪禮備要近世陶菴李綽安訥四禮便覽東菴柳長源常變通考又復推衍家禮廣蒐諸說斟酌時宜皆見行于世樂書之作罕聞於東方

종은 『고려사(高麗史)』를 개수하도록 하였고, 이후 『국조보감(國朝寶鑑)』, 『여지승람(輿地勝覽)』, 『동국통감(東國通鑑)』 등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하였다.<sup>16)</sup> 이와 같은 저술들을 12종 수록하였다.

논어류(論語類)는 공자가 남긴 사서(四書)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논어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고려 때 안珦(安珦)이 중국에서 경서를 수입하였고, 권보(權溥)는 『주자사서집주(朱子四書集註)』를 간행하기를 청하여 성리학을 널리 알렸다. 이로부터 성리학과 관련된 서적으로 『주자집주(朱子集註)』, 『사서통(四書通)』을 중국에서 유입하였고, 이후 이황의 『주서절요(朱書節要)』, 『성학십도(聖學十圖)』 등이 찬술되어 조선조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이와 같이 논어류에서는 사서(四書)를

포함한 성리학과 관련된 서적 15종의 서목을 수록하고 있다.

효경류(孝經類)는 교화(教化)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서적을 다루었다. 효경류에서는 고려조 권보가 저술한 『역대효행록(歷代孝行錄)』을 비롯하여 조선조에 저술된 고금의 가치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를 뽑아 편집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효경주석(孝經註釋)』, 『동몽수지(童蒙須知)』 등 9종의 서적을 기재하였다.<sup>18)</sup>

소학류(小學類)는 글자를 만드는 근본인 육서(六書) 및 고금(古今)을 통하는 문자인 육체(六體)와 관련된 서적 13종을 수록하였다. 소학류에는 『천자문(千字文)』을 비롯하여 조선조의 『훈민정음(訓民正音)』, 『규장전운(奎章全韻)』 등이 포함되었다.<sup>19)</sup>

16) 『東國十志』, 卷3 「藝文志」.

春秋記事朝聘征伐皆事也。故曰事爲春秋。高麗宣宗時柳洪以武人精於春秋左氏傳每國有虞疑引古決策者多則爲士者不可不講乎此也。睿宗置養正齋使課春秋由是名儒輩出記事之法始詳金富軾撰三國史閔清撰編年綱目忠穆王命李齊賢安軸李穀等更撰補其闕漏。我朝世宗令集賢殿兼史聽以廣記事於是命柳觀尹淮改修高麗史又撰資治通鑑訓義上親可讐正名曰思政殿訓義世祖朝申叔舟撰國朝寶鑑成宗朝徐居正撰歷代年表輿地勝覽五十卷東國通鑑五十七卷仁祖朝申翊聖著東史補篇而東國之春秋備矣。

17) 『東國十志』, 卷3 「藝文志」.

論語孔氏遺書四子只舉論語所以該諸書也。高麗安文成公貿來經書以倡道學永嘉府院君權溥請刊朱子四書集註以廣性理之學東人始知尊信論語時經書之至東方者惟朱子集註而已。鄭圃隱爲博士講說四書超出人意聞者頗疑及得胡炳文四書通無不惑合。國朝儒賢輩出皆以四子爲入道之基址祖述而表章之文康公李石亭撰大學衍義輯略二十一卷文元公李彥迪撰大學補遺續或問(正廟題卷首曰先正之於大學方可謂先學朱子也)明宗疾甚文景公閔箕袖大學衍義定國本一篇呈領相李浚慶(東臯)曰當於上前開陳此義李相之贊定大策實賴此也。文純公李滉手編朱書節要宣祖嗣服進聖學十圖一太極圖二西銘圖三小學圖四大學圖五白鹿洞規圖六心統性情圖七仁說圖八心學圖九敬齋箴圖十夙興夜寐箴圖文成公李珥進聖學輯要博採經傳子史三年而成書礪城尉宋寅命刊行傳道粹言蓋取河南兩夫子之說見於語錄者約繁而就簡潤質而成文者也嘉靖間又刊行延平問答錄書凡三篇曰師弟問答者晦菴夫子手編師說也。曰後錄者後人追錄晦菴稱道師說并遺文遺事也補錄者琴川周木所編所以補後錄之未備者也(退溪有跋文)。

18) 『東國十志』, 卷3 「藝文志」.

孝經者曾子記孔子陳孝道之書而漢儒傳之。國朝深念教化之本世宗命偰循改撰高麗權溥所著歷代孝行錄又命儒臣編輯古今忠信孝子烈女之卓然可法者名曰三綱行實圖布中外寔爲孝經之羽翼成宗朝文孝公尹孝孫撰孝經註釋中宗朝所頒小學勸學文文敬公金安國所刊呂氏鄉約正俗等書朱子童蒙須知二倫行實(公按嶺南以小學教一道正其趨向)英宗朝小學訓義亦皆孝經之支流而爲列聖朝化民成俗之方。

19) 『東國十志』, 卷3 「藝文志」.

小學古周官保氏掌養國于教之六書謂象形象事象意象聲轉注假借造字之本也。漢太史教學童試之六體謂古文奇字篆書隸書繆篆蟲書所以通知古今文字摹印章書幡信也。國朝置童蒙教官典訓蒙士始教之千字文(梁朝周興嗣所撰肅廟親製序

시부류(詩賦類)는 문체(文體)와 관련된 것으로, 배상현은 우리나라의 시부가 고려 때부터 시작하였으며 조선조 전반적인 사장(詞章)의 흐름을 『조선왕조실록』의 기사(記事)를 인용하여 기재하였다. 그러나 시부류에 해당하는 서적의 목록은 기재되지 않았다.<sup>20)</sup>

소설가류(小說家類)는 가담항어(街談巷語)이고 도청도설(道聽塗說)로서, 일종의 야사(野史)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배상현은 『용재총화(慵齋叢話)』, 『필원잡기(筆苑雜記)』, 『태평한

설(太平閑話)』, 『추강냉화(秋江冷話)』, 『소문 쇄록(謾聞瑣錄)』 등 10종의 서적을 이 류(類)에 속한다고 하였다.<sup>21)</sup>

유가류(儒家類)는 인(仁)과 의(義)를 귀하하였고, 우리나라 유교는 기성(箕星)으로부터 시작하여 신라 때 설총(薛聰)과 최치원, 고려 때 최충(崔沖)과 안향(安珦) 등에 의해 크게 성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조에는 유풍(儒風)이 흥하였다. 위의 내용 다음에 배상현은 '이하결(以下缺)'이라고 기재하였으며,<sup>22)</sup> 이를 통해

文) 又令年少文臣衣冠子弟肄習漢語每朔時書各體考定高下又別置寫字官其法蓋出於此也 新羅時弘儒侯薛聰作吏讀皆假字而用官府民間至今行之然言語之間或窒澁不能達其萬一我 世宗親製諺文二十八字名曰訓民正音象形而字倣古篆因聲音而協七調周流該括雖風聲鶴唳鷄鳴狗吠皆可以書矣(鄭麟趾撰序文) 初太宗朝置鑄字所範銅爲字後又取字典本木刻二十二萬字藏于內閣謂之生生字 及編整理通攷時以生生字本範鑄三十萬字謂之整理字 又有奎章全韻新定玉篇全韻則以聲比類者也玉篇則以形聚部者也 我東讀書之法雖六經四子初無一定句讀至我 光廟朝 中朝宿儒黃鑄謫在遠東 光廟命成三問申叔舟等往受句讀于黃鑄東人之定經子句讀自此始 東人釋經亦無定訓文穆公柳崇祖長成均時爲諺釋以曉諸生經書之有諺釋自文穆公始後有七書諺解刊行于世。

20) 『東國十志』, 卷3 「藝文志」.

詩賦者三百篇之餘也 故觀於此而知俗尚之美惡時政之得失其關於世教也不細矣 我東詩賦貢舉之法創自麗朝而國朝因之參以表策疑論及明經以子午卯酉試之國有慶又有增廣庭試之制焉其取人之規可謂備矣搜挾之禁始於 成廟丁酉(丁酉策士者數十人)(命尙傳搜場中挾命罷場明日改試) 割封書表之制肇於 孝廟辛卯(命監試試卷窄其封皮又定割封書表之制以防用情之弊) 科舉相避之法遭摹服陳試之例申於 顯廟丙午(更定科舉相避法又舉人初試後遭摹服末葬不得會試者一依丁憂例陳試從閔維重之言也) 自是以來文體漸卑土風益偷其弊有不可勝挾者矣 中宗朝趙光祖奏言科舉專取詞章徒長浮薄之習外有監司守令內有六卿三司成薦才行之士聚大庭而親策之則可以得人此漢賢良方正科之遺意也 又試其學術斯無所失矣 上可之行之未久薦舉之法遂廢 宣祖朝李珥曰 上曰作人之效雖非一朝可見弊習傷教者不可不革今者士之初登第者四館目爲新來汚辱侵虐無所不至夫豪傑之士尚不以科舉爲念況使之毀冠裂服盡喪威儀以棄廉恥然後乃登仕版則孰肯爲用乎 中朝接待新恩之人禮貌頗重若聞此事則必以爲胡風矣 上曰侵虐何意昉於何代 珥曰文獻無徵但聞之麗末科舉不公登第者貴家子弟口尚乳臭故時人目之曰紅粉榜人情憤激遂兆侵辱云 上曰可革也特命痛禁又教該曹曰近來師儒之選專尚文辭鬱含遊學之士皆以決科爲急土習如此他日成就將何所觀擇有學行堪爲師表者擢授方面使之巡行列邑勸課教誨 肅宗朝南九萬奏曰臣頃忝試官見舉子之文則文體比前大變化例用文字必務爲新奇若云天淵則變曰星淵以星之在天也 末世則變曰亥世以亥居十二支之末也 繼此以後則變曰胤茲以裔恭惟則變曰莊惟且以險字僻語綴成章句文於其間多以語錄攏入反常趨怪之習誠甚可駭夫 所謂詞章之學者其辭類於俳優而不切於經旨其功倍於小學而無補於世教然而上之取人下之事君皆決於此是以浮華之習日長而奔競之風歲加雖以 列聖之累加嚴束而詐僞之生愈變而愈勝可勝歎哉

21) 『東國十志』, 卷3 「藝文志」.

小說家者街談巷語道聽塗說者之所造也 古有稗官今之野史亦謂之稗乘 國朝禁私史有志於筆硯者事涉朝廷則不敢書 田野間閑說話時有錄之者如慵齋叢話四佳筆苑雜記太平閑話秋江冷話謾聞瑣錄等書及芝峰類說青坡劇談是也樸翁稗說破閑集乃前朝文人所錄(三國遺事)而亦等閑說也。

22) 『東國十志』, 卷3 「藝文志」.

儒家者貴仁義主名教達則致君澤民以行其道窮則立言著書以明其道 東方儒教創自箕聖而仙於羅佛於麗道術不明新羅翰林薛聰方言解經吏禮(讀)開途以倡起斯 文侍郎崔致遠筆耕桂苑廣拓墻藩(在正廟親製告由文) 然放跡於仙釋之間高麗侍中崔沖(謚文憲公)牧召學徒教誨不倦 東方學校之典蓋由沖始時人謂海東孔子忠烈王時聖學榛蕪土不知講 安文成公珦創出百官銀布以贍學教授七管十二徒諸生又購畫先聖及七十子像使爲土者知所尊慕而興起焉 故周慎齋曰公所尚之正一洗三韓舊染若益齋圃隱公皆餘波所漸 圃隱鄭先生身倡正學手持大綱赫日明星萬古東方(四句正廟親製文)

유가류에 관한 내용과 해당되는 서목이 충분히 기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농가류(農家類)는 하늘의 때에 따라 경작을 하여 의식(衣食)을 족히 하기 위한 것이다. 기성(箕星)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려 때 문익점(文益漸)이 중국으로부터 면종(綿種)을 얻어 와 일국의 이익이 된 일을 비롯한 조선조에 농사를 잘하기 위해 노농(老農)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농사직설(農事直設)』, 『농잠서언해(農蠶書諺解)』 등 관련 서적 5종의 간행 사실을 설명하였다.<sup>23)</sup>

병가류(兵家類)는 권모(權謀)를 헤아리고 형세(形勢)를 살피며 음양(陰陽)을 받아들여 기정(奇正)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단군과 기자 이후로 삼한(三韓)과 고려, 조선 때의 군대와 권모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주로 조선조에 널리 읽혔던 『역대병요(歷代兵要)』, 『삼감전

법(三甲戰法)』, 『손자병법(孫子兵法)』 등 조선조의 서적 6종과 중국의 서적 2종을 수록하였다.<sup>24)</sup>

음양가류(陰陽家類)는 일신(日辰)을 살피 형덕(形德)을 추측하는 일로서, 고려와 조선조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월일(月日)을 살피도록 한 일례로 그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조선조의 『장일통요(葬日通要)』, 『오행총괄(五行總括)』 등 2종이 대표적인 서목으로 수록되었다.<sup>25)</sup>

복서류(卜筮類)는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로서, 『기자홍범(箕子洪範)』에서 복서의 법을 말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고려조의 최지몽(崔知夢)과 오윤부(伍允孚) 등이 점법(占法)에 뛰어났고, 나라에 복사(卜師)라는 관직을 둘만큼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배상현은 이에 해당되는 서적

嘗爲成均博士講說經書 牧隱亟稱之曰夢周論經橫說堅說無非當理祭酒禹倬當忠宣王時上疏敢諫退老于禮安縣以講學自娛 退溪曰先生之學其亦有脫去世俗之陋而有發於龍門之餘韻者矣國朝 列聖培養儒風大興(以下缺).

23) 『東國十志』, 卷3 『藝文志』.

農家者相地宜順天時深耕易耨以足衣食此其所長也自箕聖畫爲井田教民農桑(今平壤舍○門外有井田舊址)其法備矣 東方初無綿花高麗時文益漸時得綿種於中國歸而教耕一國賴利遂以衣食之國聞於天下國朝 世宗以五方風土不同樹藝各有宜 明諸道訪老農已驗之術以聞使鄭招就加誥次名曰農事直說頒于中外 世祖朝梁誠之贊農桑書畜牧書 中宗朝金安國按嶺南又別撰農蠶書諺解刊行 孝宗丁酉公州牧使申夙編得農書銕板以進 上命該曹多印廣布.

24) 『東國十志』, 卷3 『藝文志』.

兵家者尙權謀審形勢包陰陽奇正以制勝者也 東方檀箕二君仁讓而得國及三韓分裂各以兵爭百濟句麗强大而好戰(眉叟東事) 隋唐之兵俱困於薩水其有權謀形勢可知矣 肅慎氏楷矢石弩強於天下 高麗崔茂宣始學火砲金富軾制大砲飛石(重數百○○○糜碎) 朴犀以大于浦(大刀)擊却蒙兵我 朝忠武公李舜臣創智造艦形如伏龜(上設板蓋如龜形露梁之戰以此得捷) 又得倭兵器造鳥銃(我國之有鳥銃始此)其有器械技巧亦可見矣 端宗朝命金淡申叔舟等刪取兵法要用者成書名曰歷代兵要 世祖九年頒三甲戰法(分三隊各九人) 又命鑄錢幣(形如柳葉箭)梁誠之撰沿邊防成書以進 宣祖癸巳購得戚將軍(名繼光)紀效新書於都督李如松麾下書凡十四篇別集又四篇自選畝畝民丁以至號令戰法行營武藝守哨水戰莫不畢備蓋本之於孫武兵法而其教習條目尤詳焉 柳文忠公與從事官李時發等講解難曉或質問于天將衙門又擇其丁壯者送于浙江參將駱尙志習火砲諸技後設訓練都監募飢民爲兵能舉一巨石能超一丈墻者入格旬日得數千人教以戚氏三手鍊技之法自是軍國賴之文忠公以制勝方略分軍之法爲必敗之道請印明 祖宗朝鎮管之規又定鍊兵規式及戰守機宜凡十條 丁酉西平府院君韓浚謙請依 天朝設擺撥邊遠馳啓一夕而至 仁祖二年置營將於諸道十七年御春塘臺試內禁衛射砲春秋定爲恒規 顯宗十年設訓練別隊軍 英宗三十年撰續兵將圖說又有兵學指南行于世.

25) 『東國十志』, 卷3 『藝文志』.

陰陽家者涓日辰推刑德以作事此眞所長也拘者泥於小數舍人事而任鬼神 麗俗尤甚每上國使至必擇月日受詔至有踰月留使之弊送死多過期不葬國初尙有其風 太宗命鄭以吾等遍閱群書取其正論去其邪說集成一書名曰葬日通要 成宗命徐居正撰五行總括祿命之四柱極於五十一萬八千四百.

의 목록을 수록하지는 않았다.<sup>26)</sup>

의방가(醫方家)는 초석(草石)의 한온(寒溫)을 밝히고, 수화(水火)의 화제(和齊)를 이르러 병을 치료하여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조선조에는 활인서(活人署)·전의감(典

醫監)을 두어 의약(醫藥)을 관장하게 하였으며, 『의약구급방(醫藥救急方)』, 『벽온방(辟瘟方)』, 『창진방(瘡疹方)』,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4종의 의학 관련 서적을 수록하였다.<sup>27)</sup>

각 류(類)별로 수록된 서적은 〈표 4〉와 같다.

〈표 4〉 『동국십지』『예문지』에 수록된 서적

분류	수록 서적	종수
역리(易理)	『易解』, 『啓蒙翼傳』, 『啓蒙圖書切要』, 『啓蒙傳疑』, 『易學圖說』, 『周易口訣』, 『經國大典』, 『大典續錄』, 『續大典』, 『六典』, 『治平要覽』, 『絲綸全集』, 『君鑑』, 『謨訓輯要』, 『君德君道』, 『治平圖』, 『洪範學記』, 『皇極經世』, 『東史補篇』, 『程傳』, 『即書』	20
시(詩)	『五言詩』, 『檄文』, 『違心詩』, 『四皓歸漢詩』, 『范蠡詩』, 『太公釣圖詩』, 『雨荷詩』, 『碧瀾渡詩』, 『黃花詩』, 『揭幃詩』, 『北關詩』, 『東湖問答』, 『東文選』, 『太平閑話』, 『東人詩話』, 『統軍亭序』, 『吊義帝文』, 『西宮律詩』, 『退潮碑文』, 『玉樓上樑文』, 『魯山墓詩』, 『遼海篇』, 『皇華集』	23
예악(禮樂)	『禮經』, 『古今詳定禮文』, 『新儀』, 『淺錄』, 『五禮我』, 『禮記日抄』, 『五禮儀』, 『續五禮儀』, 『喪禮備要』, 『四禮便覽』, 『常變通考』, 『古禮』, 『禮記』, 『五禮』, 『家禮』	15
춘추(春秋)	『三國史』, 『編年綱目』, 『高麗史』, 『思政殿訓義』, 『國朝寶鑑』, 『歷代年表』, 『輿地勝覽』, 『東國通鑑』, 『東史補篇』, 『春秋左氏傳』, 『春秋』, 『資治通鑑訓義』	12
논어(論語)	『論語』, 『朱子四書集註』, 『四書』, 『四書通』, 『大學衍義輯略』, 『大學補遺』, 『續或問』, 『大學』, 『大學衍義』, 『朱書節要』, 『聖學十圖』, 『聖學輯要』, 『傳道粹言』, 『延平問答錄』, 『師弟問答』	15
효경(孝經)	『歷代孝行錄』, 『三綱行實圖』, 『孝經註釋』, 『呂氏鄉約』, 『正俗』, 『二倫行實』, 『小學訓義』, 『孝經』, 『童蒙須知』	9
소학(小學)	『訓民正音』, 『整理通攷』, 『奎章全韻』, 『玉篇』, 『大學諺解』, 『中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 『周易諺解』, 『詩經諺解』, 『書經諺解』, 『小學』, 『千字文』	13
시부(詩賦)	-	0
소설가(小說家)	『樸翁稗說』, 『破閑集』, 『三國遺事』, 『慵齋叢話』, 『筆苑雜記』, 『太平閑話』, 『秋江冷話』, 『謾聞瑣錄』, 『芝峰類說』, 『青坡劇談』	10
유가(儒家)	-	0
농가(農家)	『農事直設』, 『農桑書』, 『畜牧書』, 『農蠶書諺解』, 『農家集成』	5
병가(兵家)	『東事』, 『歷代兵要』, 『三甲戰法』, 『制勝方略』, 『續兵將圖說』, 『兵學指南』, 『紀效新書』, 『孫武兵法』	8
음양가(陰陽家)	『葬目通要』, 『五行摺括』	2
복서(卜筮)	『洪範』	1
의방가(醫方家)	『醫藥救急方』, 『辟瘟方』, 『瘡疹方』, 『東醫寶鑑』	4
총 계		137

26) 『東國十志』, 卷3 『藝文志』.

卜筮所以占事知來蓋吉凶由人著於蓍龜故善占者稽諸躬而不任蓍龜 箕子於洪範稽疑言卜筮之法而及其東也 衆技隨之則東方之有卜筮尙矣羅時日官累言占象有驗 高麗崔知夢伍允孚皆精於占法 國朝亦有卜師筮人之職而以儒先而旁通者多矣 然此特一藝今不枚舉焉.

27) 『東國十志』, 卷3 『藝文志』.

醫方家者辨草石之寒溫致水火之和齊以治病反之於平 國朝置活人署典醫監以掌醫藥而世宗成宗兩朝抄取醫藥救急之方編書刊行 文敬公金安國按嶺南時得辟瘟方瘡疹方請令撰集廳刊布 世祖朝許浚撰東醫寶鑑行于世 景宗朝左相李光佐啓請惠民署爲都民醫藥而設典醫監爲朝臣醫藥而設設置之意豈不甚盛而朝臣不得服典醫一帖藥況都民乎人蔘唐材之價自惠廳割給使久任掌之所謂久任即提調之私人使得霑丐者也此可罷也 上曰惠民醫藥之名則美矣孔子曰爾愛其羊我愛其禮安知他日不有因其名而復其舊者乎其勿罷.

이처럼 『동국십지』 「예문지」는 중국의 서적뿐 아니라 우리나라 삼한시대부터 고려, 조선조에 편찬된 서적 137종을 아우르고 있다. 다만 『동국십지』 「예문지」가 다른 유서(類書)에 비해 많은 종류의 서적을 수록하지 못했다는 것, 15류(類)에 관한 서적을 고루 수록하지 못하고 일부 류(類)에 편중되어 수록되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서적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4.1.3 서지기술법

배상현은 『동국십지』를 저술할 때 각 지(志)의 첫머리에는 자신의 의견을 밝혀 각 지의 취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예문지」 역시 배상현이 그 취지를 밝혔는데 이와 같은 것은 『한서』 「예문지」와 같은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상현은 이 부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과 『논어(論語)』의 구절을 인용하여 문현의 부족함을 주장했다. 이에 배상현은 우리나라가 고려조부터 장서의 정책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점과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장서 정책을 세세히 저술하였다.

「예문지」의 각 항목은 서지적 기술과 성격이 동일하다. 각각의 항목인 15가지의 류(類)에는 그 류(類)에 대한 내용 및 역사 등 그와 관련된 사항을 배상현이 『고려사(高麗史)』 또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서적을 찬자가 참고할 수 있었던 까닭은 『동국십지』 「서(序)」에서 이

만인과 강진규, 배상현이 스스로 밝혔듯이 배상현이 성균관 존경각(尊經閣)에 임명되어 『문현비고(文獻備考)』를 보았다는 사실로 보아 다양한 서적을 참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체직하여 배상현이 편집한 것을 가져와 보충하였다고 하여 많은 양을 참고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각 류(類)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한 후에, 배상현은 그 류(類)에 해당하는 서적들을 수록하였다. 서적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시대별, 왕조별에 따라 서술했으며 서적을 저술한 찬자와 때로는 권책(卷冊)수를 함께 저록하였다.

세종은 유관(柳觀) · 윤희(尹淮)에게 『고려사(高麗史)』를 개수토록 하였고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을 찬술하게 하였다. 이를 친히 바르게 이름 지어 말씀하시길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라고 하였다. 세조조에 신숙주는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찬술했다. 성조조에 서거정(徐居正)은 『역대연표(歷代年表)』, 『여지승람(輿地勝覽)』 50권, 『동국통감(東國通鑑)』 57권을 찬술하였다. 인조조에 신익성(申翊聖)은 『동사보편(東史補編)』을 저술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하였다.<sup>28)</sup>

이처럼 「예문지」에서는 왕조명과 함께 누가, 무엇을, 몇 권을 저술했는지에 대한 서적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물론 그 정보가 모든 서적에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서적에 관한 사실

28) 『東國十志』, 卷3 「藝文志」, 春秋類.

世宗令命柳觀尹淮改修高麗史, 又撰資治通鑑訓義, 上親可讐正, 名曰思政殿訓義. 世祖朝申叔舟撰國朝寶鑑, 成宗朝徐居正撰歷代年表輿地勝覽五十卷東國通鑑五十七卷. 仁祖朝申翊聖著東史補篇而東國之春秋備矣.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는 현재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예문지」의 방가류에서 '世祖朝許浚撰東醫寶鑑行于世(세조조에는 허준이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지어 세상에 내놓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현재 알려진 바로는 허준의 『동의보감』은 세조조보다 후인 선조(宣祖)조에 저술된 것으로 배상현이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서지적 기술법을 사용하여 각 류(類)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와 관련된 서적들의 서목을 간략하게 작성하였다. 하지만 각 류(類)에 대한 내용은 그 깊이가 모두 다르다. 찬인(撰人)만을 밝힌 것도 있었고 좀 더 자세하게 찬인과 그 서적에 대한 간단한 해제(解題)를 넣어 서적의 내용을 알 수 있다.

## 4.2 분류체계의 비교 분석

### 4.2.1 『한서』『예문지』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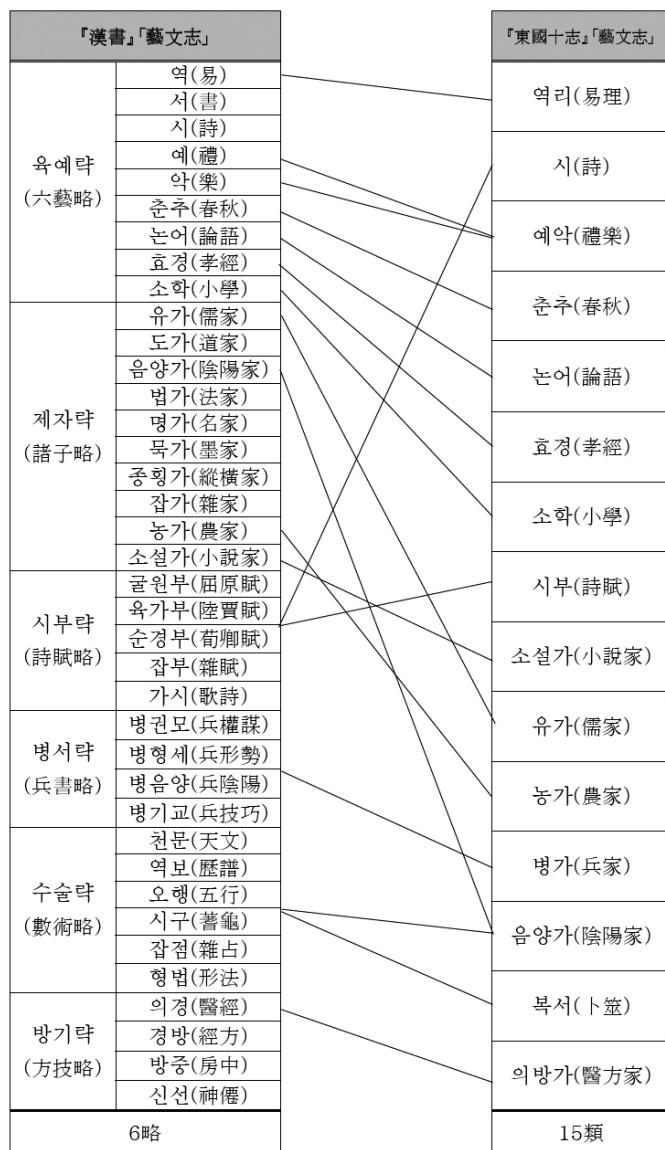
『동국십지』의 서문(序文)에서 배상현은 『한서』의 '지(志)'의 체제를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앞에서 『한서』와 『동국십지』의 전체 체제를 비교하니 그것이 대체로 같았다. 『동국십지』가 『한서』를 모방하였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각의 「예문지」 체계도 모방이 되었는지 혹은 찬자 배상현만의 분류체계를 가졌는지를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한서』『예문지』와 『동국십지』『예문지』를 비교해보니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서』『예문지』의 분류체계는 6략(略)으로 육예략(六藝略) · 제자략(諸子略) · 시부략(詩賦略) · 병서략(兵書略) · 수술략(數術略) · 방기략(方技

略)으로 구성되었다. 이것과 『동국십지』『예문지』의 15류(類)와 비교한 결과, 『동국십지』『예문지』의 역리류, 예약류, 춘추류, 논어류, 효경류, 소학류 등 6류(類)는 『한서』『예문지』에서 육예략의 역(易) · 서(書) · 예(禮) · 악(樂) · 춘추(春秋)에 해당된다. 『한서』『예문지』의 시류는 육경(六經)의 하나인 『시경』 및 이를 해설한 저술에 관련된 것인 반면, 『동국십지』『예문지』의 시류는 내용상 시가(詩歌)에 해당한다. 즉 육예략 중 시(詩)류는 『동국십지』『예문지』의 시류와 명칭은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소설가류, 유가류, 농가류 등 3류(類)는 『한서』『예문지』에서 제자십가(諸子十家)를 설한 제자략의 소설가, 유가, 농가와 관련이 있다. 또한 『동국십지』『예문지』의 시부류와 같은 경우는 그 내용상 『한서』『예문지』의 시부략에 속한다. 『동국십지』『예문지』의 병가류는 그 내용이 전술, 병법 등에 대한 것이므로 『한서』『예문지』의 병서략에 해당되며, 『동국십지』『예문지』의 음양가류와 복서류는 일월(日月) 등으로 점일 쳐서 미래를 관측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한서』『예문지』의 제자략의 음양가와 수술략과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동국십지』『예문지』의 의방가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서적과 관련되므로 『한서』『예문지』에서는 의학과 관련된 내용인 방기략에 해당된다.

<표 5>에서 보듯이 『동국십지』『예문지』의 분류체계는 『한서』『예문지』의 6략(略)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육예략과 제자략에 해당되는 류(類)가 많았다. 『동국십지』『예문지』는 『한서』『예문지』의 체제와 일치하지 않으며 『한지』의 특정 분류체계에 치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서』『예문지』에서 정해놓은 분류체계

〈표 5〉 『한서』『예문지』와 『동국십지』『예문지』의 분류체계 비교



의 구성과 『동국십지』『예문지』의 것과는 대부분 그 내용이 같았으나, 다른 성격을 지닌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서』『예문지』의 육예략 중 '시(詩)'는 육경의 시를 의미하는 반면 『동국십지』『예문지』의 '시'는 시가(詩歌)

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명칭이라도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국십지』에서 『한서』의 체제를 따랐다는 것은 전체적인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각 지(志)의 체제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4.2.2 『동국통지』『예문지』와 비교

우리나라에서도 『동국십지』『예문지』와 같은 고서 또는 서목을 정리한 「예문지」를 가지고 있는 서적이 있다. 그 중 『동국통지』는 박주종이 1868(고종 5)년에 단군 아래부터 순조 때 까지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편찬한 것으로, 배상현의 『동국십지』와 함께 조선에서 전대 및 당대의 모든 시대를 통괄하여 각 시대의 전장 제도를 개인의 힘으로 사서(史書)의 '지(志)'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박주종과 배상현은 동일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지방 선비로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박주종이 배상현의 만사(輓詞)를 쓴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로 보아 박주종의 『동국통지』는 배상현의 『동국십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서적 「예문지」의 분류체계를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동국십지』『예문지』는 15류(類)이지만 이보다 후에 저술된 『동국통지』『예문지』의 분류체계는 22류(類)이다. 대체로 『동국십지』『예문지』는 15류(類)가 『동국통지』『예문지』의 분류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동국통지』『예문지』의 경적류(經籍類)에 『동국십지』『예문지』 15류(類) 중 6개의 류(類)가 해당되어 이 부분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았다. 나머지 9가지의 류(類)는 골고루 속해있으나 『동국통지』『예문지』에서 『동국십지』『예문지』의

<표 6> 『동국십지』『예문지』와 『동국통지』『예문지』의 분류체계 비교

『東國十志』	『東國通志』
역리(易理)	경적류(經籍類)
시(詩)	유가류(儒家類)
예악(禮樂)	사가류(史家類)
춘추(春秋)	화사기술류(華史記述類)
논어(論語)	문편류(文編類)
효경(孝經)	어제문편류(御製文編類)
소학(小學)	시가류(詩歌類)
시부(詩賦)	어제시가류(御製詩歌類)
소설가(小說家)	표부류(表賦類)
유가(儒家)	자서류(字書類)
농가(農家)	잡찬류(雜纂類)
병가(兵家)	전장류(典章類)
음양가(陰陽家)	상위류(象緯類)
복서(卜筮)	여지류(輿地類)
의방가(醫方家)	농가류(農家類)
15류	병가류(丘家類)
	의가류(醫家類)
	복서류(卜筮類)
	역가류(譯家類)
	음양가류(陰陽家類)
	석가류(釋家類)
	문집류(文集類)
	22류

분류체계가 해당되지 않은 화사기술류·문편류·어제문편류·전장류·상위류·여지류·역가류·석가류 등 8개의 류(類)를 통해 『동국통지』『예문지』의 분류체계가 『동국십지』『예문지』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를 넣어 보다 넓게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동국십지』『예문지』의 분류체계를 『한서』『예문지』와 『동국통지』『예문지』의 분류체계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동국십지』『예문지』의 분류체계는 『한서』『예문지』와의 분류체계와는 전혀 다른 구성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찬자 배상현은 서문에 『동국십지』의 체계를 『한서』의 지(志)를 본떠 만들었다고 했으나, 『동국십지』 자체의 체계만을 『한서』를 따랐을 뿐 『예문지』의 체계는 『한서』의 『예문지』 체계를 비교한 결과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동국십지』『예문지』는 『한서』『예문지』와 『동국통지』『예문지』의 체계와 비교한 결과, 일반 분류체계와는 달리 그다지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여 경(經)과 자(子)부에 해당하는 분류체계 등 특정 분야의 분류체계만을 세분하여 구성해놓았고 사(史)나 집(集)과 같은 분야의 서적을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러한 점이 『동국십지』의 한계점으로 보인다.

## 5. 『동국십지』『예문지』의 수록도서 분석

연구 대상문헌인 『동국십지』『예문지』에 수록된 도서는 찬자 배상현이 한국과 중국의 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한국의 도서

는 시기별, 즉 신라, 고구려, 고려, 조선 등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느 나라의 도서가 얼마만큼 구성되었는지, 어느 시기의 도서를 많이 수록하였는지 분석하겠다. 또한 수록도서의 주제를 분석하여 찬자 배상현의 분류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수록도서들은 어느 주제가 많은지 등의 특징을 알아보겠다.

### 5.1 국별 수록도서 분석

#### 5.1.1 한국서적

『동국십지』『예문지』에 수록된 서적 137종 중에 한국서적은 110종에 해당된다. 110종은 시기(왕조)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15류 중에 시부, 유가, 부서류에 해당하는 한국서적은 하나도 없었다. 유가류의 서적은 앞서 서술하였듯이 찬자 배상현이 '이하결(以下缺)'이라고 기재하며 마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아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나, 당시 조선시대에는 유가류에 해당하는 서적이 그 종수가 상당하고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를 전부 수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위의 표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이들을 다시 시대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을 보면 『동국십지』에서는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간행된 전적을 총망라하여 수록하고 있다. 특히 조선의 경우에는 더욱 시기를 왕조별인 세종조, 성종조, 영조조 등으로 세분하여 기재하였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적이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류체계에 따라 수록된 도서의 수는 차이가 나타난다. 고구려와 신라 때 간

〈표 7〉 한국인 저술서적

분류	왕조	수록 서적	종수
역리(易理)	고려	『易解』	18
	조선	『啓蒙翼傳』, 『啓蒙圖書切要』, 『啓蒙傳疑』, 『易學圖說』, 『周易口訣』, 『經國大典』, 『大典續錄』, 『續大典』, 『六典』, 『治平要覽』, 『絲綸全集』, 『君鑑』, 『諺訓輯要』, 『君德君道』, 『治平圖』, 『洪範學記』, 『皇極經世』, 『東史補篇』	
시(詩)	고구려	『五言詩』	20
	신라	『檄文』	
	고려	『違心詩』, 『四皓歸漢詩』, 『范蠡詩』, 『太公釣圖詩』, 『雨荷詩』, 『碧瀾渡詩』, 『黃花詩』, 『揭幢詩』, 『北闕詩』	
시(詩)	조선	『東湖問答』, 『東文選』, 『太平閑話』, 『東人詩話』, 『吊義帝文』, 『西宮律詩』, 『退潮碑文』, 『玉樓上樑文』, 『魯山墓詩』	
예악(禮樂)	고려	『禮經』, 『古今詳定禮文』, 『新儀』	11
	조선	『淺錄』, 『五禮我』, 『禮記日抄』, 『五禮儀』, 『續五禮儀』, 『喪禮備要』, 『四禮便覽』, 『常變通考』	
춘추(春秋)	고려	『三國史』, 『編年綱目』	10
	조선	『高麗史』, 『資治通鑑訓義』, 『思政殿訓義』, 『國朝寶鑑』, 『歷代年表』, 『輿地勝覽』, 『東國通鑑』, 『東史補篇』	
논어(論語)	조선	『大學衍義輯略』, 『大學補遺』, 『續或問』, 『朱書節要』, 『聖學十圖』, 『聖學輯要』, 『傳道粹言』	7
효경(孝經)	고려	『歷代孝行錄』	7
	조선	『三綱行實圖』, 『孝經註釋』, 『呂氏鄉約』, 『正俗』, 『二倫行實』, 『小學訓義』	
소학(小學)	조선	『訓民正音』, 『整理通攷』, 『奎章全韻』, 『玉篇』, 『大學諺解』, 『中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 『周易諺解』, 『詩經諺解』, 『書經諺解』	11
시부(詩賦)		-	0
소설가(小說家)	고려	『樸翁稗說』, 『破閑集』, 『三國遺事』	10
	조선	『慵齋叢話』, 『筆苑雜記』, 『太平閑話』, 『秋江冷話』, 『謾聞瑣錄』, 『芝峰類說』, 『青坡劇談』	
유가(儒家)		-	0
농가(農家)	조선	『農桑書』, 『畜牧書』, 『農蠶書諺解』, 『農家集成』	4
병가(兵家)	조선	『東事』, 『歷代兵要』, 『三甲戰法』, 『制勝方略』, 『續兵將圖說』, 『兵學指南』	6
음양가(陰陽家)	조선	『葬日通要』, 『五行摠括』	2
복서(卜筮)	조선	-	0
의방가(醫方家)	조선	『醫藥救急方』, 『辟瘧方』, 『瘡疹方』, 『東醫寶鑑』	4
총 계			110

행된 서적은 각 1종이었고, 고려는 19종인 반면에 조선의 서적은 89종이나 된다. 조선 때 간행된 도서가 주를 이루고 있는 사실로, 『동국십지』는 주로 조선의 서적을 참고하였고 이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며 배상현이 조선조의 사람이었기에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분류별로 수록된

서적의 종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배상현이 『동국십지』를 저술할 때, 분류체계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에 좀 더 치중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시부류, 유가류와 복서류의 도서 중 『동국십지』『예문지』에 수록된 한국도서는 전혀 없었다.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표 8〉 한국도서의 시대별 수록 현황

분류	삼국	고려	조선	합계
역리(易理)	0	1	17	18
시(詩)	2	9	9	20
예악(禮樂)	0	3	8	11
춘추(春秋)	0	2	8	10
논어(論語)	0	0	7	7
효경(孝經)	0	1	6	7
소학(小學)	0	0	11	11
시부(詩賦)	0	0	0	0
소설가(小說家)	0	3	7	10
유가(儒家)	0	0	0	0
농가(農家)	0	0	4	4
병가(兵家)	0	0	6	6
음양가(陰陽家)	0	0	2	2
복서(卜筮)	0	0	0	0
의방가(醫方家)	0	0	4	4
합계	2	19	89	110

위의 사실을 분석한 결과, 『동국십지』는 일종의 백과전서로서 그 특성상 많은 시대의 것들을 아울러 그 내용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하지 못한 점이 『동국십지』의 한계점이 된다.

### 5.1.2 중국서적

『동국십지』 「예문지」에 수록된 서적 137종 중에 중국서적은 약 20%의 비중인 27종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서적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중국서적이 『동국십지』 「예문지」에 수록된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중국서적으로 찬자가 밝힌 27종을 분류체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국십지』에 수록된 서적은 한국서적만이 아니라 중국서적이 있다. 이처럼 중국의 서적이라고 구별한 기준은 「예문지」에 배상현이 기재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한국서적의 경우는 분류체계별로

수록 서적의 시기를 다시 구분하여 기재한 반면 중국서적은 시기별로 나누지 않았다. 이는 중국서적의 종수가 적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서적이 많이 기재된 것은 논어류이고, 그 다음이 예악류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와 관련된 서적 이 대부분이다. 논어류에는 중국의 『주자사서집주(朱子四書集註)』를 고려 때에 수입하여 간행했고 이에 성리학이 널리 알려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리학이 성행하기 시작하고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배경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중국서적을 많이 참고하고 수입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서적을 참고하기는 했으나 그 수가 적은 이유는 문현이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전해져 영향을 많이 주었으나 고려 이후 장서 정책을 세우고 조선에 들어서는 왕들의 서적에 관한 관심이 커졌을 뿐 아니라, 『동국십지』는 우리나라의 문물제도를 정리

〈표 9〉 중국인 저술 서적

분류	수록 서적	종수
역리(易理)	『程傳』, 『卽書』	2
시(詩)	『遼海篇』, 『皇華集』, 『統軍亭序』	3
예악(禮樂)	『古禮』, 『禮記』, 『五禮』, 『家禮』	4
춘추(春秋)	『春秋左氏傳』, 『春秋』	2
논어(論語)	『論語』, 『朱子集註』, 『四書』, 『四書通』, 『大學』, 『大學衍義』, 『延平問答錄』, 『師弟問答』	8
효경(孝經)	『孝經』, 『童蒙須知』	2
소학(小學)	『小學』, 『千字文』	2
시부(詩賦)	-	0
소설가(小說家)	-	0
유가(儒家)	-	0
농가(農家)	『農事直說』	1
병가(兵家)	『紀效新書』, 『孫武兵法』	2
음양가(陰陽家)	-	0
복서(卜筮)	『洪範』	1
의방가(醫方家)	-	0
총 계		27

한 것이기 때문이다.

배상현이 친술한 『동국십지』『예문지』에 수록된 서적들을 시대별로 구분하면 조선조에 저술된 서적이 87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통해 배상현이 조선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서적이 당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서적도 함께 참고하고, 조선 뿐 아니라 중국의 서적도 참고한 것을 통해 배상현이 『동국십지』를 저술할 때 다양한 서적을 참고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5.2 수록도서의 주제 분석

연구대상인 『동국십지』『예문지』의 수록도서는 배상현이 정한 분류체계인 15류에 의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수록도서의 주제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고서 또는 서목(書目)

정리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부 분류법으로 다시 분류한 결과 〈표 10〉과 같다.

각 분류체계별 수록서적을 사부분류로 구분하고 보니 배상현이 정한 분류체계의 각 항목의 성격이 드러났다. 역리류는 역시 경부의 역류가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조정의 의식 등과 관련이 있는 사부 정법류의 성격의 서적이 있다. 즉 『동국십지』『예문지』 역리류는 『역경』 및 이를 해설한 서적을 비롯하여 조정의 의식이나 법령 등을 다룬 서적을 포함하고 있다. 시류는 대부분 한 사람의 저작을 모아 하나로 엮은 것이나 여러 사람의 저작을 하나로 묶은 서적들로 집부별집류나 총집류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시경(詩經)』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시(詩)를 의미한다. 예악류는 경부 예류인 저작들, 『주례』, 『의례』, 『예기』 등을 해설한 저술들과 조정의 의식과 예법의 질통을 적은 저술과 역조(歷朝)의 전례(典禮)와 관련된 저술들이 이에 해당된

〈표 10〉 수록서적의 四部分類 현황

분류	사부분류		종수	
역리	경부	易 類	7	7
		政書類	5	
		職官類	2	
		雜史類	1	
		地理類	1	
		史表類	1	
	吏部	類書類	1	1
		總集類	1	
		別集類	1	2
	子部	儒家類	1	1
		總集類	4	
		別集類	18	22
시	集部	禮 類	10	10
		政書類	4	
		目錄類	1	5
예악	경부	春秋類	2	2
		正史類	2	
		別史類	1	
		編年類	5	
		史表類	1	
		地理類	1	
	吏部	四書類	9	9
		儒家類	6	6
		孝經類	1	
춘추	集部	小學類	1	2
		儒家類	7	7
		易 類	1	
		詩 類	1	
		書 類	1	
논어	經부	小學類	3	
		四書類	4	
		政書類	1	10
		儒家類	1	
		地理類	1	
효경	子部	孝經類	1	
		小學類	1	
		儒家類	7	2
소학	경부	易 類	1	
		詩 類	1	
		書 類	1	
		小學類	3	
		四書類	4	
	吏部	政書類	1	10
		儒家類	1	
		正音類	1	
	子部	-	-	1
		-	-	2
시부	-	-	-	-
소설가	경부	史部	雜史類	1
		子部	儒家類	1
	集部	雜著類	1	
		隨筆類	7	8
유가	-	-	-	-
농가	子部	農家類	5	5
병가	경부	別史類	2	2
	子部	兵家類	6	6
음양가	子部	術數類	2	2
복서	경부	書 類	1	1
의방가	子部	醫家類	4	4

다. 춘추류는 경부 춘추류에 해당하는 저술들, 즉 『춘추』, 『좌씨전』, 『공양전(公洋傳)』, 『곡량전(穀梁傳)』을 분주(分註) 혹은 겸석(兼釋)한 책들과 사부 중에서 기전체(紀傳體) 등 24사 및 정사(正史)와 관련된 저술을 포함하는 정사류, 편년체의 역사인 편년류, 별사류 등과 지방의 강역(疆域), 산천, 풍속 등을 기술한 저작을 담은 지리류가 속한다. 즉 『동국십지』『예문지』의 춘추류에 수록 도서는 『춘추』와 관련된 저술 및 역사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논어류에는 경부 사서류에 해당하는 『논어』와 관련된 저술들, 그리고 자부 유가류에 속하는 저서들이 속한다. 효경류에는 경부의 효경류와 소학류, 자부 유가류의 저서가 대부분이다. 소학류는 경부 소학류와 자부 정음류의 서적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문자와 관련된 내용인 저술들과 경부 사서류에 속하는 『소학』과 관련된 서적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소학류는 『소학』뿐만 아니라 문자와 관련된 서적들로 그 특징을 나타낸다. 소설가류는 대부분이 집부 수필류에 해당된다. 이는 소설류를 의미하는데 폐관(稗官)이 가담항어(街談巷語)하고 기록한 것 중에서 일화와 고사를 정리(情理)에 사로잡혀 수록한 것들이며 이들이 소설가류의 특징이다. 농가류는 전부 자부 농가류로서 농시(農時), 농산(農產), 농기(農器), 농정(農政), 식물종식법(植物種埴法), 가축사양, 수리(水利) 등에 관한 저술들이다. 병가류는 대부분 자부 병가류에 속하며, 사부분류에 따라 병법(兵法)과 관련된 것들이 이에 속한다. 음양가류는 자부 술수류에 해당되는데 음양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에 관한 이론을 전개한 것으로 인간의 길흉을 추측한 서적들이 이에 해당된다. 복서류

는 경부 서류에 해당하는 『홍범』이 속하는데 사부분류에 따른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 의방가는 자부 의가류에 해당하여 병리, 진단, 치료, 약성, 처방, 침구 등에 따른 저서들이 속하며 이와 관련된 특징을 보인다.

이 책의 분류체계를 각 항목별 수록된 도서들을 사부 분류법으로 구분하여 보니 15류의 분류체계 특징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일례로 춘추류는 『춘추』와 관련된 것과 사서(史書)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이와 같은 특징을 띠고 있으며, 소학류는 『소학』의 경전과 그밖에 문자에 관한 서적들이 해당되어 2가지 이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배상현이 정한 15류는 각각의 특징이 하나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류에도 2가지 이상의 주제가 포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배상현의 『동국십지』『예문지』 분류체계인 15류의 특징이다.

배상현이 당시 참고로 했던 서적들의 성격을 알기 위해 배상현의 분류체계를 배제하고 각 서적을 사부분류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의 결과와 같이 예문지에 수록된 도서들을 사부분류에 따라 나누었더니 분류별 해당되는 도서의 비율은 경부(經部), 자부(子部), 집부(集部), 사부(史部)의 순으로 높았다. 경부(經部)에 해당하는 서적이 예문지에 수록된 것 중 약 3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경부 안에서도 다시 자세히 분류한 결과, 사서류로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정문(正文) 및 그의 주역서(註譯書)와 총의(總義)가 이에 해당되는 서적의 수록이 많다. 그 외에 고대의 예제(禮制)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이 많이 수록되었다. 사부(史部)에 해당하는 서적은 전

〈표 11〉 수록도서의 四部 分포 비율

대분류		經部		史部		子部		集部	
소분류	종수	四書類	13	政書類	10	儒家類	16	別集類	19
		禮類	10	編年類	5	兵家類	6	隨筆類	7
		易類	8	別史類	3	農家類	5	雜著類	1
		小學類	4	史表類	2	醫家類	4	總集類	5
		書類	2	雜史類	2	術數類	2		
		春秋類	2	正史類	2	類書類	1		
		詩類	1	地理類	2	正音類	1		
		孝經類	1	職官類	2				
				目錄類	1				
		합계(비율)	41(30%)		29(21%)		35(26%)		32(23%)
총계(비율)						137(100%)			

체 137종 중에 약 21%에 해당된다. 사부(四部)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분류와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 중에서도 국정 운영의 규범과 실제 내용을 담은 정서류의 서적 이 가장 많았다. 자부(子部)는 전체 수록 서적 중 약 26%가 이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도 인의(仁義)를 근본으로 삼는 유가(儒家)의 여러 학설이 속하는 유가류의 서적이 가장 많이 수록 되었다. 집부(集部)에 속하는 서적은 「예문지」에 기재된 서적 중 약 23%이다. 이 중에서도 한 개인의 시문(詩文)을 모아놓은 시문집인 별집류로 분류된 도서가 제일 많이 기재되었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예문지」에 수록된 도서의 특징을 살펴보니, 배상현은 경부의 서적을 많이 수록하기는 했으나 경사자집의 서적이 「예문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상현이 분류했던 방식에서는 그 수록된 서적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각 서적에 따른 사부분류로 구분한 결과 전체 서적에 대한 사부(四部)의 서적은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는 특징

을 보이고 있다.

## 6. 결 론

이상에서 1855(철종 6)년에 배상현(裴象鉉)이 편찬한 조선시대 문물 제도서인 『동국십지(東國十志)』와 십지에 수록된 「예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배상현(1814-1884)이 쓴 『동국십지』의 서문은 찬자와 이만인(李晚寅), 발문은 강진규(姜晉奎)가 썼는데, 배상현의 서문에 의하면 그는 1855년 침거하던 중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보다가 열람의 편의를 위해 중국의 『한서(漢書)』 10지(志)의 예를 모방하여 자료들을 유형별로 초록하여 한 책으로 만들었다. 그 뒤 체직(遞職)되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편집한 것을 가져와 소루(疏漏)한 것을 보충하여 간행하였다.

둘째, 『동국십지』의 체제는 권1에 율력지(律

歷志) · 예악지(禮樂志) · 형법지(刑法志) · 식화지(食貨志), 권2에 연사지(匪祀志) · 천문지(天文志) · 오행지(五行志), 권3에 지리지(地理志) · 제언지(堤堰志) · 예문지(藝文志)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의 첫머리와 마지막에는 지(志)의 취지와 자신의 의견을 적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제도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책의 중점이 천문 · 오행 · 예악 · 제사 등 문화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책들과의 체제 비교를 한 결과 선거 · 백관 · 병위와 같은 정치 · 군사적인 분야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셋째, 『동국십지』의 내용은, 율령지에서는 도량과 역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예악지에서는 역대의 제복(祭服) · 제기(祭器) · 악기(樂器) · 악장(樂章) · 가곡(歌曲) 등을 기록하였다. 형법지에서는 형제(刑制) 일반을, 식화지에서는 전제(田制)와 전폐(錢幣)를 기술하고 삼정(三政)을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연사지에서는 역대의 사직과 오묘(五廟) · 종묘(宗廟) · 궁묘(宮廟)에서의 제향과 제천 · 잡사를 기술하였다. 천문지에서는 성상(星象)과 그 운행 및 자연현상을, 오행지에서는 오행을 통해 음양변화의 이치를 논하였다. 지리지에서는 우리나라의 역대 강역과 지리를 기술하였으며, 부록으로 성보(城堡) · 부경도리(赴京道里) · 해도(海島)가 첨부되어 있다. 제언지에서는 우리나라 하천을 대천(大川)과 세천(細川)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예문지에서는 우리나라 서적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동국십지』『예문지』는 중국의 서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구려(高句麗), 신라(新羅)를 거쳐 고려(高麗)에서 조선 순조(純

祖)조 사이에 저술된 서적 137종을 수록하고 있다. 다른 「예문고」나 「예문지」를 갖춘 서적에 비하면 그 수록범위와 종수가 적고, 참고 서적이 일부 주제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동국십지』『예문지』의 분류 및 배열체계는 역리(易理) · 시(詩) · 예악(禮樂) · 춘추(春秋) · 논어(論語) · 효경(孝經) · 소학(小學) · 시부(詩賦) · 소설가(小說家) · 유가(儒家) · 농가(農家) · 병가(兵家) · 음양가(陰陽家) · 복서(卜筮) · 의방가(醫方家) 등 15류(類)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류체계는 다른 「예문고」나 「예문지」를 갖춘 서적의 분류체계와 비교한 결과, 경(經)과 자(子)부에 해당하는 일부 분류체계가 자세하게 배열되었고, 사(史)와 집(集)부에 해당하는 체계는 『동국십지』『예문지』의 분류체계로 설정되지 않았다.

여섯째, 『동국십지』『예문지』의 서지적 기술법은 각각의 항목인 15가지의 류(類)에는 그 류(類)에 대한 내용 및 역사 등 그와 관련된 사항을 배상현이 『고려사(高麗史)』 또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술하였다. 그 뒤에는 그 류(類)에 해당하는 서적들을 수록하였는데 서적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시대별, 왕조별에 따라 서술했으며 서적을 저술한 저자와 때로는 권책(卷冊) 수를 함께 저록하였다.

일곱째, 「예문지」의 내용을 15가지로 구분이 된 유별(類別)로 분석하면 역리류는 학문의 근원으로서, 역(易)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전래되는 과정을 밝혔다. 시류는 후에 사부(詞賦)로 불리기도 하고, 대체로 시가(詩歌)를 말하며, 예악류는 예문(藝文)의 근본으로 그 중

요성을 부각하였다. 춘추류는 조빙(朝聘)·정벌(征伐) 등의 일[事]을 기록한 것이고, 논어류는 공자가 남긴 사서(四書)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효경류는 교화(教化)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시부류는 문체(文體)와 관련된 것이다. 소설가류는 가담항어(街談巷語)이고, 유가류는 인(仁)과 의(義)에 관한 내용이다. 농가류는 하늘의 때에 따라 경작을 하여 의식(衣食)을 죽히 하기 위한 것이며, 병기류는 권모와 형세를 해아리고 음양을 받아들여 기정(奇正)을 모으는 것이다. 음양가류는 일신(日辰)을 살펴 형덕(形德)을 추측하여 일이고, 복서류(卜筮類)는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의방가는 초석(草石)의 한온(寒溫)을 밝히고, 수화(水火)의 화제(和齊)를 이르러 병을 치료하여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여덟째, 수록도서를 분석한 결과, 배상현에 의해 구분되어 기재된 한국도서와 중국도서를 비교해보면 한국도서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문

지」에 수록된 중국도서는 전체 도서 중 약 20%였다. 배상현은 한국의 사람이며 『동국십지』는 우리나라의 종합적 문물제도서이기 때문에 한국도서가 많이 수록되었던 것이다. 수록도서에 대한 주제분석을 사부분류로 한 결과, 경부, 자부, 집부, 사부 순으로 많았으나 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동국십지』는 사찬 작업을 통해 통시대적이고 종합적으로 전장제도를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19세기경에 활발 하였던 백과전서학적인 학문 분위기의 소산이다. 비록 『동국십지』가 완벽한 체제와 내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개인의 힘으로 경세를 위하여 일정한 관점에서 전장제도를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조선시대 최초의 '지(志)'를 갖춘 종합 문물제도서이고, 「예문지」를 저작하여 그 당시 현존하는 서적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國朝文科榜目』.
- [2] 『東國十志』.
- [3] 『朝鮮王朝實錄』.
- [4] 朴周鍾. 2004. 『山泉先生文集』. 예천: 山泉先生文集刊行所.
- [5] 班固. 1995. 『한서예문지』. 이세열 解譯. 서울: 자유문고.
- [6] 裴漢根. 1939. 『興海裴氏族譜』. 안동: 興海裴氏族譜所.
- [7] 余慶蓉, 王晉卿, 共著. 2009. 『中國目錄學思想史』. 南台祐, 宋日基 共譯. 대구: 태일사.
- [8] 千惠鳳. 1991. 『韓國書誌學研究』. 서울: 古山千惠鳳教授定年紀念選集刊行委員會.
- [9] 千惠鳳. 1997. 『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 [10] 金鍾天. 1980. 『海東釋史 藝文志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11] 金鍾天. 1990. 宋史藝文志에 보이는 韓國關係書. 『書誌學研究』, 5 · 6: 183-193.
- [12] 閔泰熙. 1989. 『東國通志의 藝文志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13] 朴仁鎬. 1990. 東國十志와 東國通志에 대한 研究. 『淸溪史學』, 9: 191-229.
- [14] 徐敬浩. 1983. 漢書 · 藝文志 · 諸子略 · 小說家 小考. 『中國人文科學』, 2: 135-162.
- [15] 沈隅俊. 1979. 漢書藝文志의 性格. 『奎章閣』, 3: 1-30.
- [16] 鄭光水. 1990. 增訂文獻備考의 藝文考 研究. 『書誌學研究』, 5 · 6: 403-449.
- [17]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online]. [cited 2011.6.30]. <<http://people.aks.ac.kr/index.ak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ukjo-moonkwabangmok*.
- [2] *Dongkuksipji*.
- [3] *Chosunwangjosilrok*.
- [4] Park, Joo-Jong. 2004. *Collection of Sanchun*. Yeochun: Publisher for Collection of Sanchun.
- [5] Ban, Go. 1995. *Hanseo Yeomunji*. Translated by Se-yeol Lee. Seoul: Jayu Moongo.
- [6] Bae, Han-Geon. 1939. *Genealogy of Heong-hae Bae*. Andong: Publisher of Genealogy of Heong-hae Bae.
- [7] Yeo, Kung-Yong & Wang, Jin-Kung. 2009. *The History of China's Cataloging Thought*. Translated by Tae-woo Nam and Il-gie Song. Daegu: Taeilsa.
- [8] Chon, Hye Bong. 1991. *A Study on Korean Bibliography*. Seoul: Professor Gosan Chon Hye Bong Jeongnyeon Ginyeom Seonjip Ganhaeung Wiwonhoe.
- [9] Chon, Hye Bong. 1997. *Korean Bibliography*. Seoul: Minumsa.
- [10] Kim, Jong-Chun. 1980. *A Study of Haedong Yuksa-Yeamunji*. M.A.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1] Kim, Jong-Chun. 1990. "Songsa Yeamunji-e boineun Hanguk gwangyeseo." *Bibliographical Science of Korea*, 5 · 6: 183-193.
- [12] Min, Tae-Hee. 1989. *A Study on Dongkuk Tongji Yeamunji*. M.A.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3] Park, In-ho. 1990. "A study on Dongkuksipji and Dongkuktongji." *Chunggye Sahak*, 9: 191-229.
- [14] Seo, Kung-ho. 1983. "Hanseo. Yeamunji. Jejariak · Soseolga. sogo." *Jungkuk Inmun Kwahak*, 2: 135-162.

- [15] Shim, Woo-choon. 1979. "Hanseo Yeomunjiui seonggyeok," *Kyujanggak*, 3: 1-30.
- [16] Jeong, Kwang-Soo. 1990. "Jeungjeong Munheon Bigo Yemungo yeongu." *Bibliographical Science of Korea*, 5 · 6: 403-449.
- [17] A General Information System of Korean Historical Figures. [online]. [cited 2011.6.30].  
⟨<http://people.aks.ac.kr/index.aks>⟩.